

리아호나

성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12, 18, 20쪽

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24, 50쪽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평의회가 갖는 힘, 28쪽
왜 전통적인 가족은 옹호할 가치가 있는가, 32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의 하나는
다시 시도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실패도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24 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그리고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제시카 그리피스
부모와 지도자들이 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공과와 활동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 28 평의회에 앉아
마이클 매글비
앞으로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
일요 모임에서 평의회를 열 때,
어떻게 평의회에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 32 가족의 영원한 중요성
엠 러셀 벨라드 장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전통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다.

7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회개의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연락하십시오
올해는 월례 메시지 대신 방문 교육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여러분이
방문 교육하는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이다.



표지
프랑스 파리 성전의 채광창 사진.
크리스티나 스미스.

특집 기사

- 8 바라보라, 그리고 살라
더블유 마크 배셋 장로
자동차 배터리처럼,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도 계속
충전되어야 한다.
- 12 성전은 더 높은 곳을 향한 시야를
 열어 줍니다
진 비 빙엄 자매
성전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화평과
영적인 시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 20 성전 참석에 따르는 약속된 축복
체리 에번즈
부모인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
하지만 그 희생에는 값진 축복이
따랐다.

교회 본부 기사

- 18 음악: 성전에 오라
젠 핀보로우, 마이클 에프 무디
- 38 신앙의 초상: 어맨다 지리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창조의 목적
엔 엘돈 테너 회장



44

44 조기 귀환


데스티니 야브로

조기 귀환한 후에 나는 매일의 삶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해서 봉사할 다른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48 종교 교육원에서 복음을 더욱 잘 배우는 방법

포 니엔 (펠리페) 처우

더욱 심도있게 복음을 공부하기 위한 세 가지 새로운 방법은 재능, 학습 일지, 영감받은 질문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응답을 찾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56

50 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교리와 성약 19편 23절
본부 청남 청년 회장

52 포스터: 그리스도의 화평

53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리와 성약 19편 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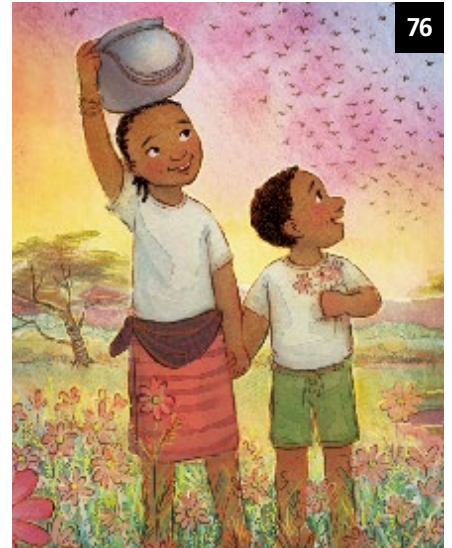
54 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그리스도의 화평
닉 데이

56 구주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그리스도에 관한 성구를 모두 공부한 후에 자신의 간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놀랄 것이다.

60 축구, 일요일, 그리고 영적인 배치기
샬럿 라카발
일요일에 경기를 뛰지 않으면 월은 팀에서 빠지게 될 것인가?

63 나의 이상한 이웃
사만다 베스트
외삼촌과 외숙모는 이웃과 이야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겁을 주었다. 하지만 그 이웃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

64 우리들 공간



76

66 빛을 비추라: 음식과 미소를 함께 나눠요

68 루시아가 받은 응답
멀린 왓킨스
루시아는 선생님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었다.

70 여러분의 빛을 환히 비추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는가?

72 루카스와 그를 괴롭히는 친구
에릭 비 머독
루카스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그가 한 행동은 과연 옳았을까?

74 모로니와 정비공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우리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아들 모로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꼭 알맞은 사람이 와 주도록 기도했다.

75 나는 경전을 읽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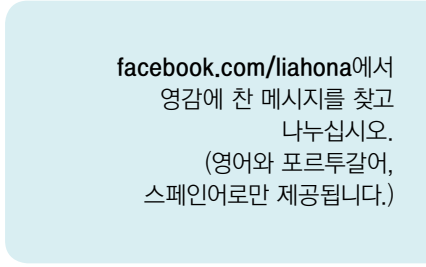
76 예수님 이야기: 창조
김 웹 리드

79 색칠하기: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이예요

인터넷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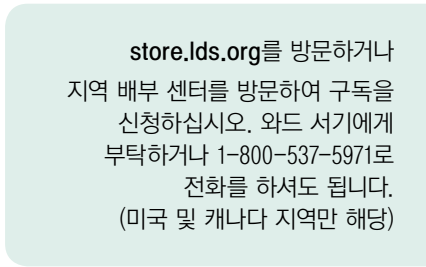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liahona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고 나누십시오.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i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이오린 : GETTY IMAGES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20, 32

방문 교육 7

예수 그리스도 24, 56, 66, 68, 75

간증 48, 56, 63, 70, 74

봉사 7, 20, 44, 66

종교 교육원 48

감사 8, 20

부름 41

종교적 자유 32

겸손 24

사랑 7, 32, 40, 63

창조 76, 79, 80

경전 공부 8, 24, 48, 56, 68, 70

상호 항상 모임 주제 24, 50,

청녀 38, 41, 65

교육 44, 48

52, 53, 54, 61

친절 72

교회 모임 28

선교 사업 12, 40, 44, 63, 64

평의회 28

구원의 계획 32

성전 12, 18, 20

평화 12, 24, 41, 50, 52,

기도 8, 40, 42, 43, 68, 70, 74

순종 8, 60

53, 54

모범 65, 70, 72

안식일 60

회개 4, 38, 72

미디어 65

영원한 관점 1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회개의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에게는 평범함에서 벗어나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뤄 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의 하나는 다시 시도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실패도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¹

사람들은 보통 새해가 되면 결심을 다지며 목표를 세운다. 나아지고, 변화하고, 다시 시도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몬슨 회장이 언급한 “회개의 은사”를²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다시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일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몬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 주신 가르침에서 발췌한 것이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여] …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권고했다.³

용서가 낳는 기적

“우리는 모두 그릇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아직 바로잡지 않았다면, 바로잡을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은 회개라 불립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축복 된 선물을 여러분과 제게 주시고자 우리의 구주께서는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겠지만, 그 약속은 참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18]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영생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돌이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용서받는 기적에 수반되는 감미로운 평안과 기쁨도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십시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구주께서 마련해 주신 회개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진로를 수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해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⁵

돌아가는 길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인생 여정에서 발을 헛디뎠다면, 제가 보장하건대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회개라 불립니다.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그것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 온전히 회개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지금 밟으시도록 촉구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이사야가 말한 평안과 평온, 확신을 더 빨리 경험할 것입니다.[이사야 1:18 참조]”⁶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범법을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회개의 은사를 통해서만 죄에서 벗어나 깨끗해질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설정한 진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토론해 본다.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새해의 영적인 결심을 기록해 두고 친구나 배우자, 또는 가족 중 한 사람과 자신의 진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고한다.

합당하게 신권을 지닐 수 있으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⁷

다시 깨끗해지십시오

“생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회개한다면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⁸

구주의 필수적인 역할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과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또 배워야 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⁹ ■

주

1. “마음 속의 의지”,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74쪽, 번역 수정.
2. “선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6쪽.
3. 모사이아서 4:2.
4.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9쪽, 번역 수정.
5. “선택”, 86쪽, 번역 수정.
6. “계명을 지키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5쪽, 번역 수정.
7.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8쪽, 번역 수정.
8.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7쪽.
9. “행복으로 향하는 완벽한 길”,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0~81쪽, 번역 수정.



또한 “회개에 관한 여덟 가지 오해”를, lds.org/go/1186에서 참고한다.

회개하겠다는 결심

새해 목표도 우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평범함에서 벗어나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뤄 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1월이 되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다진다. 더 많이 미소 짓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목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를

통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회개는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이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를 깨끗이 씻고 발전하여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구주와 같이 되고자 할 때 장애가 될 만한 것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문제인가?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인가?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본 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권능을 통해 여러분이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구주께서 마련해 주신 회개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진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회개는 선물이에요

회개의 은사는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언제나 도와주실 거예요. 각 그림을 회개의 여러 단계 중 하나와 연결해 보세요.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과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 가족, 구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계속 연락하십시오

방문 교육은 보살피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다른
이들을 보살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보살핌”이란 타인을 위로하거나 행복하게 하고자 섬기고, 돌보며 돕는 것을 말한다. 방문 교육은 방문 대상자를 보살피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셨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천 명을 먹이셨고, 형제의 죽음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으며,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

그분의 모범에 따라, 우리는 방문 교사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토대는 사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문하는 각각의 자매를 알아 가고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방문 대상 자매를 보살피고 그 자매의 신앙을 다지도록 도울지 알고자 영감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천사가 [우리]와 친구가 되는 데

[따르는] 제한이 사라질 것이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되던 1842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보살핌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 왔다. 가령, 82세의 미망인 조앤 존슨과 그녀의 방문 교육 동반자는 이웃에 사는 자매를 방문 교육하는데, 이 자매는 89세이며 폐렴 환자이다. 이 자매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조앤과 그녀의 동반자는 매주 직접 가거나 전화로 이 자매의 안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른 방문 교사들에게는, 어떤 달에는 방문할 자매에게 격려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방문 교육의 정수는 개인적인 관계를 쌓고 애정 어린 태도로 귀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의

기술과 전통적인 직접 방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²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살피신 방법이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54쪽, 번역 수정.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9.5.1 참조.



생각해 볼 점

어떻게 우리는 무엇이 방문 교육으로 “인정되는지”를 걱정하는 대신 각 방문 대상 자매가 방문 교사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가?

보살핌

방문 교육 기사 페이지는 매달 구체적인 메시지보다는 서로를 더 효과적으로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원리를 주로 다룰 것이다. 기도하고 영감을 구한다면, 각 자매에게 필요한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고, 필요 사항을 어떻게 도울지 알게 될 것이다.

교류 발전기는 엔진에 연결되어
있다. 발전기가 있어야만
자동차는 계속 달릴 수 있다.

교류 발전기란,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발전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





더블유 마크 배셋
장로
칠십인 정원회

바라보라, 그리고 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영적인 새로움을 얻는 끊임없는
원천이 생깁니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미국의 북부 캘리포니아와 유타를 정기적으로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보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로 떠날 날을 앞둔 어느 여름에 유타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 번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동생 데이비드와 저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열여덟 살, 동생은 열여섯 살이었습니다. 저희는 10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가족과 함께 자주 오갔기에 그 정도면 둘이서도 여행을 잘 해낼 수 있다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과 함께 케이 삼촌과 다이앤 숙모, 사촌 미셸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 후, 저는 동생을 남겨 둔 채 차와 예약 날짜에 맞춰 혼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야간 운전을 하려고 유타주 스페니쉬포크를 떠날 무렵, 황혼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서 서부 유타를 횡단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막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도로를 분간하기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전조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전조등이 꺼지고 엔진이 멈췄으며, 차는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더니 고속도로 한쪽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배터리가 꺼져, 더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료가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폈고 주유소 위치도 확인해 두었으나, 전력이 완전히 끊어지는 문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터였습니다.

교류 발전기란?

저는 가족의 자동차를 직접 수리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도 자동차 수리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발전기에만 문제가 없다면, 좋은 배터리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류 발전기란,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를 말합니다. 이 발전기는 작동 중인 엔진의 운동 에너지로 자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전류로 변환하는데, 이 전류는 끊임없이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조등, 라디오, 에어컨을 비롯한 전기 장치가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고, 엔진도 계속 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차는 교류 발전기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발전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저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걷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남자가 저를 다음 마을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로 전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운전사의 옆 좌석에 앉아 차로 1시간을 달려 제 차를 견인해서 다시 그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제 차는 자동차 정비소 앞에 세워졌고, 마침내 처음 차를 떠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정비소가 문을 열 때까지 그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정비소에 출근한 관리자는 이 작은 마을에 제 차에 필요한 부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제 말을 듣고 실소를 터트렸습니다. 그는 주문은 할 수 있으나, 이삼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배터리를 3시간가량 충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을까지는 차를 몰고 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 필요한 부품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자, 저는 소중한 전력을 소모할세라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마을까지 차를 몰고 갔지만 그곳에도 필요한 부품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충전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여러 마을에서 친절함의 도움의 도움을 받은 끝에, 저는 30시간의 여행으로 녹초가 된 채 마침내 무사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만나

제 여정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건넌 여정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 참조)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양식, 즉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만나”를 “생산”할 “영적인 발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할 때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시간을 들여 물질적인 만나를 모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고 복음을 공부하며 항상 성신을 동반하고자 힘써으로써 영적인 만나를 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물질적인 만나를 모으는 일에 지친 나머지 자신들이 두고 온 것에 대해 “탐욕을 품[었습니다.]”(민수기 11:4) 우리도 영적인 만나를 모으는 일에

지치고 만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 것들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각자의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민수기 11:5~6 참조) 결국, 영적인 발전기가 발전을 멈추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굶주리며 구조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는 것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경전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경험에 너무 익숙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배우는 복음을 듣는 것에 너무도 익숙하게 된 나머지,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¹

우리는 그러한 행위의 필요성을 당연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신과 계속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에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활동을 소홀히 하고, 이를 지켜워하며,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영적 발전기는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거의 감지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영적으로 방전되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보라, 그리고 살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양식을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벌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민수기 21:6)

그 결과 일어난 일이 구약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민수기 21:7~9)

현대의 뱀뱀

뱀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요한복음 3:14~15 참조) 현대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역할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므로, 우리는 그들의 권고를 따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셈입니다. 마치 저에게 배터리를 재충전하게 해 준 친절한 사람들처럼,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재충전해 주고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며 이 사업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것이 곧 [그분의] 일입니다. … 영광”임을 상기시켜 줍니다.(모세서 1:39) 그분들은 특히 우리가 안식일에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 커지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물문경에도 다음과 같이 모세와 뱀뱀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았느니라.”(엘마서 33:19;

또한 20~22절 참조) 그렇지만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쳐다보는 것이었으며, 그 방법이 간단하였으므로 인하여, 곧 쉬웠으므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나이다.”(니파이전서 17:41) 이 말씀은 길이 쉬운 까닭에 우리도 언젠가 선지자들과 그분들의 권고를 바라보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아닐까요?

“너희가 낫도록 너희 눈길을 던지지만 함으로써 너희가 나올 수 있다면, 너희가 속히 바라보지 않겠느냐[?] …

… 그렇다면 … 너희 눈길을 던져 하나님의 아들을 … 믿기 시작할지니.”(엘마서 33:21, 22)

저는 “천국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꾸준히 따라갈 때 오는 축복에 감사하며,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잃더라도, 회개하여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기에 그만큼 감사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언급된 물문경의 또 다른 성구에서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같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으리니, 곧 영원한 저 생명에 이르기까지니라.”(힐라맨서 8:15)

현대 선지자의 권고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도록 마음이 단련됩니다. 제가 그 여름밤에 사막을 가로질러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는 선지자의 권고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

[lds.org/go/11811](https://www.lds.org/go/11811)에서 본 기사에 관한 가정의 밤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2006), 61쪽.



진 비 병엄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성전은 더 높은 곳을 향한 시야를 열어 줍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미국 중서부에 살던 시절을 되돌아볼 때 가장 선명하고 의미 있게 떠오르는 기억은, 저희 부부가 매년 워싱턴 D.C. 성전을 방문했던 일입니다. 당시 워싱턴 성전은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운영되던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의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희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듯, 친구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뒤 밤새 동료 회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성전에 갔습니다. 이들 남짓한 귀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성전 사업을 한 후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밤새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오가는 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몇 달간 마음이 영적으로 고양되었기에 그 시간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몇 년 후, 일리노이 시카고 성전이 생기자 저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성전은 62년 전에 캐나다 앨버타 성전이 세워진 뒤로 북미 중앙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성전이었습니다. 집에서 겨우 45분 거리에 성전이 생긴 후, 일 년에 한 번 이상 자주 성전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성전 가까이 살면서도 자주 성전에 가기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성전에 가기가 쉬우니 “내일 시간이 더 여유로우니까 내일 가야겠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탓인 것 같습니다. 당장 부담스러운 일들 때문에 정신을 빼쳐, 더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영 중인 성전에서 제공하는 의식에 [얼마나

왼쪽: 코네티컷
하트퍼드 성전의 해의
왕국실

88미터 높이의 워싱턴 D.C.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전이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별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망원경처럼, 성전은 더 높고
 넓은 곳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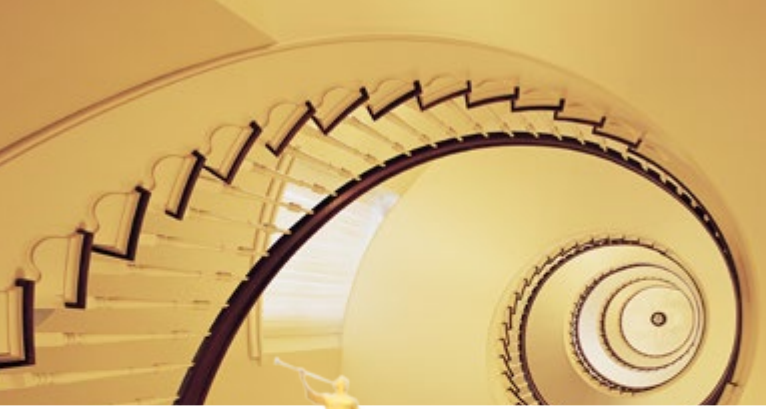


위: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프로보 시티센터 성전의
 문과 창문; 솔트레이크
 성전의 문 손잡이

배경: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의 해의 왕국실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미주리 캔자스시티
성전



자주 참석할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상황이 허락하는데도 성전에 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비유적으로 말해 성전이 코앞에 있는데도 성전에 갈 기회를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미래의 축복과 기회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여러 가지 일로 성전에 가기가 어려워 보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확언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성전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구주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은 남편과 함께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줄줄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문을 나설 무렵에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을 꼭 다물고 차로 걸어가는데, 큰딸이 동생을 안심시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돌아오실 때는 행복한 얼굴이 되어 있으실 거야. 항상 그랬거든.” 딸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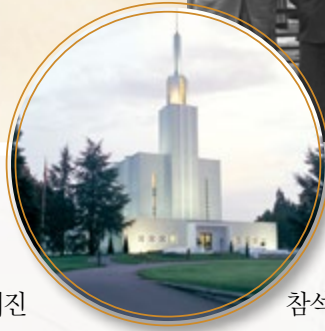
성전은 영원의 시간을 일깨워 줍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가든지 슬픔으로 무거워진 마음으로 가든지, 성전은 마음을 연 모든 합당한 회원이 고양되고 강화되는 장소입니다.

왼쪽부터: 일리노이 나부 성전의 계단,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 158주년 기념일에 헌납됨: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 의식실: 캐나다 앨버타 캘거리 성전의 문 손잡이: 코네티컷 하트퍼드 성전 내부 장식(배경)



왼쪽: 195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과 에머 맥케이 자매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인 스위스 베른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다.



아래: 와이오밍 스타밸리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저는 힘겨워하던 가족에게 주어진 축복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성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말없이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간 적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영의 속삭임과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으며, 누군가의 영원한 진보를 위해 대리 의식을 받는 동안 영의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은 저를 북돋고 강화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저 “책임감”만으로 성전에 앉아 있었던 적도 많았으며, 새벽 세미나를 가르치던 시절에는 성전 의식을 받다가 끄덕끄덕 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전에 갈 때마다 항상 축복을 받았습니 다. 축복이 곧바로 주어지건 우리의 노력이 쌓여 다음에 받을 축복으로 이어지건 간에, 성전에서 보낸 순간순간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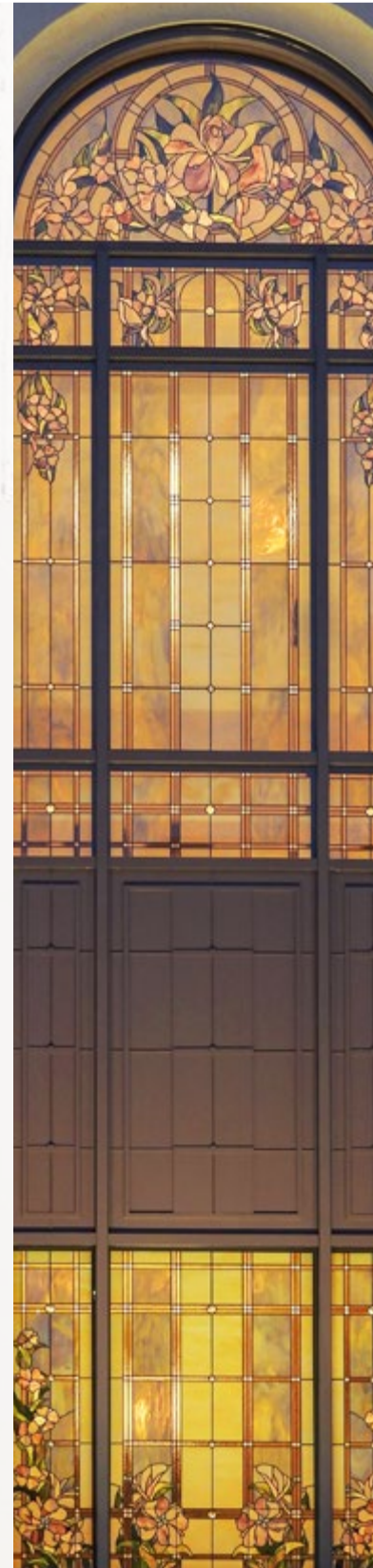
성전은 우리가 조상들을 돌아보고 후손들을 내다보도록 영원의 시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성전에 초점을 맞출 때 영원한 관점이 강화됩니다. 영원한 진보를 위해 꼭 거쳐야 할 단계인 성전에 가도록 자녀들을 가장 잘 준비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²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성전이 자녀들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그 성스러운 곳을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침실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두라고 부모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³ 또한, 우리는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얻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들과 지속할 영원한 관계를 기대하며 누리는 기쁨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고자 소망할 때,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에서 공과를 하거나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성전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과 공과, 발전 단계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⁴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나 성전 보고 싶어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성약 맺고 또 순종 약속해.”라고 노래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감사하며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구주의 “길은 이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⁵ 그 길의 여정과 끝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세상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우리를 성전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젊은 친구는 인터넷에서 교회에 관한 의견과 생각이 적힌 글을 읽은 뒤 문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풀릴 때까지 성전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간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문을 품은 분이 계신다면, 제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합니다. 멈추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2017년 5월 21일, 156번째로
 운영되는 성전인 프랑스 파리
 성전이 헌납되었다. 아래:
 와이오밍 스타밸리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오른쪽: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의
 조각 장식;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성전; 코네티컷 하트퍼드 성전의
 내부 장식

왼쪽 아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전은 멕시코 치와와
 콜로니아후아레스 성전이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또한 꾸준히
 성전에 참석하며 평화를 가져다줄
 답을 찾고자 노력하십시오. 겉으로는
 기발해 보이거나 헛된 이데올로기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진찰을 받지 않듯,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대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참됨을 알려”주는
 성신(모로나이서 10:5),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교리와 성약 8:2) 영원한 진리를
 말해 줄 것입니다.

영의 도움을 가장 풍족히 받을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은 성전 안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감독님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면, 부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가십시오.
 그곳에서 비록 지금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모두 이해하신다는
 확신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알며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영적으로 증거를 얻은 것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입니다.(빌립보서 4:7)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신앙을
 꾸준히 행사할 때, 여러분이 찾던 이해와 평안을
 얻으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은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이사야 4: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도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성전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방해 요소들과
 혼란을 뒤로합니다. 이 거룩한
 성소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질서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영혼이 숨을 얻고, 인생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 휴식합니다.”⁷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상의 부담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와 문제를 들여다보듯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근심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있으면 영원한 관점을 유지해야 함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별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망원경처럼, 성전은 더 높고 넓은
 곳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 줍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바라며,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도록 돕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진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께, 그분들의 자녀라는 우리의 참된
 가치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로마서 8:17)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영원한
 자아를 실현할 방안을 얻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방문할 때,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느낌보다 뛰어난 차원의 평안한
 느낌과 영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⁸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는 봉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안에 깃드는 정신은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많은 이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은 워싱턴 D.C.에 있는 성전을 방문한 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회원들과 간증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성전을 통해 즉시, 그리고 영원히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원이 아니었던 버스 운전사도 마침내 가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물론 버스에 있던 워드 선교 책임자는 그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선교사들에게 전했습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전이라는 선물을 잘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요 세상의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집에서 강화되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 후기의 시간이 흘러 약속된 대로 그분이 돌아오실 날이 이를 때까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빛을 얻고 소망을 느끼시기를 염원합니다. ■

주

1. 리처드 지 스코트, “성전 예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과 권능의 근원이 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43쪽.
2. Russell M. Nelson, “Prepare for Blessings of the Temple,” *Ensign*, Mar. 2002, 17.
3.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1982), 301 참조.
4. Russell M. Nelson, “Prepare for Blessings of the Temple,” 17.
5.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
6.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7. 토마스 에스 몬슨, “성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91쪽.
8. 토마스 에스 몬슨, “성전의 축복”, 91~92쪽.
9. 토마스 에스 몬슨, “성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15쪽; 강조체 추가.
10.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July 1997, 73; emphasis added.
11. 리처드 지 스코트, “성전 축복을 받음”, *성도의 빛*, 1999년 7월호, 30쪽.

구체적인 약속들

선지자와 사도들은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으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82:10 참조)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약속: “거룩한 집에 가고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고 모든 유혹을 이겨 낼 것입니다.”⁹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약속: “주님의 집에 가면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 주님의 집에 가서 여러분이 받도록 예비된 모든 놀라운 축복을 얻을 훌륭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¹⁰
-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의 약속: “정규적으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더] 위대한 목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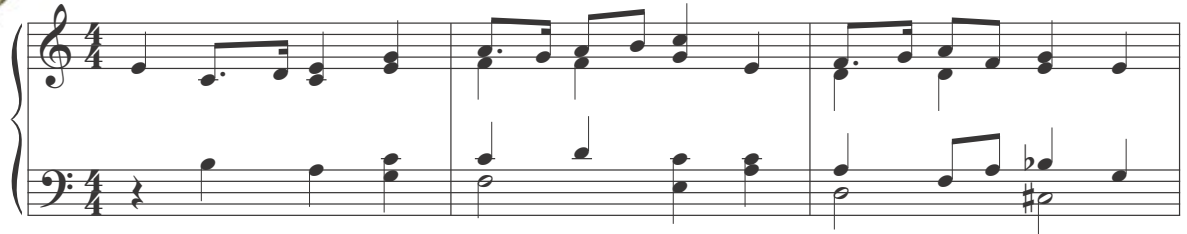


금판을 든 모로나이 천사상이 세워진 다섯 개의 성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왼쪽), 워싱턴 D.C. 성전, 워싱턴 시애틀 성전, 유타 조던리버 성전,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Temples.Ids.org에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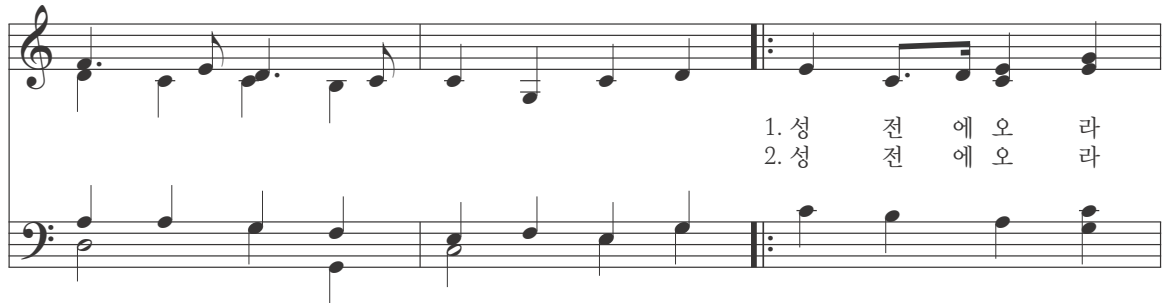
성전에 오라

고결하게 ♩ = 63-69

작사: 켈 핀보로우
작곡: 마이클 에프 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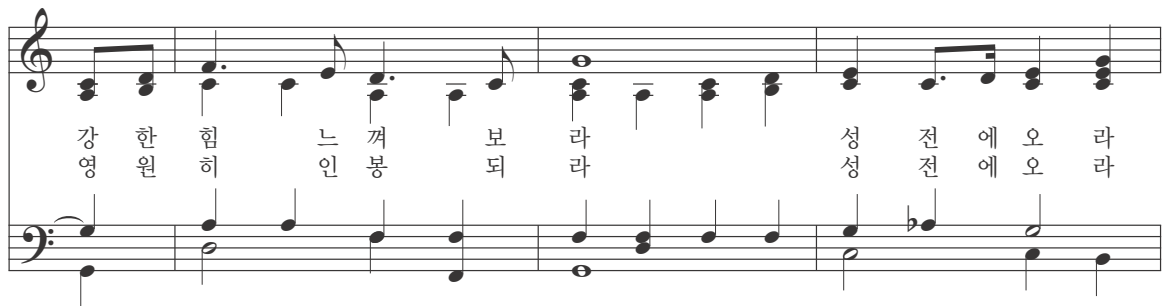
Piano introduction for the first system of the hymn 'Come to the Temple'.



1. 성 전 에 오 라
2. 성 전 에 오 라



아 름 다 운 빛 과 너 의 가 숨 깊 이 확 신 을 주 는
맘 의 치 운 받 고 사 랑 하 는 모 든 가 족 과 함 께



강 한 힘 느 껴 보 라 성 전 에 오 라
영 원 히 인 봉 되 라 성 전 에 오 라



하 나 님 사 랑 과 성 스 러 운 성 약 안 전 히 너 를
세 상 모 든 재 물 뒤 로 하 고 네 맘 주 님 께 바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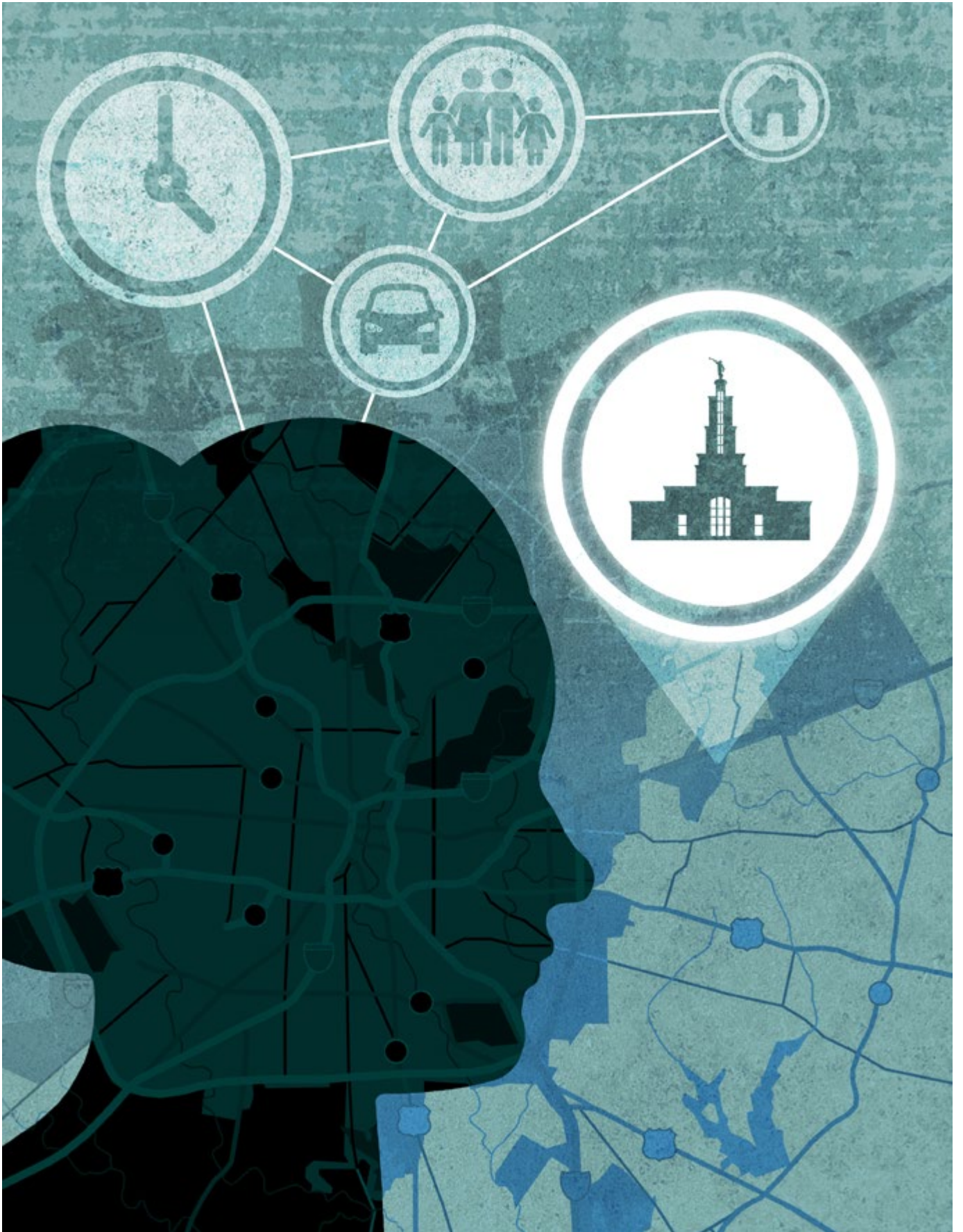
집 그 은 분 로 의 인 집 도 에 하 오 리 라

성 전 으 로 어 서 오 라 그 분 두

팔 벌 려 서 너 를 환 영 하 시 리 평 화 의 집 기 도 의

1. 집 주 님 너 기 다 리 시 네

2. 기 다 리 시 네 *molto rit.*



성전 참석에 따르는 약속된 축복

나는 성전에 더 자주 가기를 소망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체리 에번즈

몇 년 전에 스테이크 회장단 중 한 분이신 올드로이드 회장님이 우리 와드를 방문하셔서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께 약속드리건대, 성전에 참석하시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축복받으실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성전에 가는 것이 어떻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 모임을 마치고 난 뒤, 나는 어쨌든 회장님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분의 약속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 남편은 예전부터 성전에 더 자주 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성전에 가려면 그곳까지 한 시간 반을 운전한 후에,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하고, 다시 집까지 차를 몰고 와야 했는데,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들을 일고여덟 시간이나 맡기기는 쉽지 않았다.

축복의 서막

처음에는 다른 가족과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보기도 해 봤지만, 꼭 누군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해 동안 성전에 가는 날을 정해 놓은 다음 무조건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피자와 놀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일단 온 가족이 함께 성전으로 간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성전 의식에 들어가고 남은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를 먹으러 간다. 그다음에 교대해서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이 성전 의식을 받고 남은 사람이

아이들과 성전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자녀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우리가 토요일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성전에 가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전에 좀 더 자주 다닌 지 일 년이 지날 무렵 의식을 받다가 사지 마비인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 생각했다. 성전에서 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주차장 근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남편과 나는 인사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남편인 채드와 나에게 전화 거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겠다고 하자 그는 채드에게 자신의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 주었다. 채드는 그 사람 대신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기 쪽으로 손을 뻗어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채드는 그의 팔이 휠체어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전화를 그의 귀에 대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를 데리러 오기로 한 도시 버스는 그날따라 늦었고, 우리는 버스가 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와 함께 있어 주었다. 그가 지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정말 훌륭한 태도와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으며 그의 이름이 맥스 파라임을 알게 되었다.

파라 형제님도 성전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파라 형제님의 모범

그다음 달 성전에 가는 김에 우리는 파라 형제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도착하면 집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샌안토니오에서 파라 형제님의 작은 집을 찾았다. 형제님은 하얀 천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침대에 누워 계셨다. 그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형제님은 삼십 대였을





곤잘레스 형제님과 성전에 갔다가, 귀가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파라 형제님을 보게 되었다. 파라 형제님은 벌써 한참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이를 본 채드와 곤잘레스 형제님은 파라 형제님을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곤잘레스 형제님에게는 커다란 검은색 트럭이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 스테이크 제사 신권 형제들을 태운 차가 성전에 도착했고 그 형제들은 무거운 휠체어를 트럭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파라 형제님을 앞 좌석에 태운 뒤 안전띠를 채우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드렸다. 그날은 파라 형제님에게 정말 멋진 날이었을 것이다. 꿈에 그리던 트럭을 타고 성전에서 집까지 가게 될 줄 상상이나 하셨을까!

모든 면에서 축복받다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샌안토니오 성전에 가던 날, 우리는 파라 형제님 댁을 방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뵈던 이 특별한 날에 파라 형제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다.

나는 올드رويد 회장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했던 것에 무척 감사한다. 성전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파라 형제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는 중이다.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성전에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 삶은 모든 면에서 축복받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1. 매리는 지 린니, "복지 사업: 구주의 프로그램",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54쪽,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하신 말씀 참조.

때 지붕에서 떨어진 후로 사지가 마비되었다고 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에 관해 이야기하셨고 간증도 전하셨다.

그 한 번의 방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수년 동안 형제님을 방문했다. 그리고 형제님은 우리 삶에서 특별한 부분이 되셨다. 그분의 시련이 워낙 컸기에 우리는 형제님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형제님의 친구가 되어 드릴 수는 있었다. 우리는 구주의 초상화나 스페인어 몰문경 CD, 성전 사진, 싱싱한 오렌지 한 봉지 같은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드렸다. 형제님을 방문하여 초등회 노래를 불러 드리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였다.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사람이 빵 부스러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만드시 빵 한 덩어리로 보답하신다.¹

형제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 집, 차, 음식, 옷,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할 기회, 주위에 있는 선한 사람들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파라 형제님을 통해 우리는 힘듦과 시련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기뻐할 이유가 있었고 우리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고양하는 데 사용했다.

봉사하는 법을 배우며

채드가 한번은 우리 가족과 친한

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그리고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우리는 어떻게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통해
하나로 단합될 수 있는가?

제시카 그리피스
교회 잡지

매년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은 청소년들에게 제일회장단이 승인한 성구 주제를 연구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에 들어 있는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신앙과 간증이 강화되고 정원회와 반원들과 가족이 하나로 단합될 수 있다.

2018년 주제

올해의 주제를 공부하면서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화평을 어떻게 찾을지 깨닫게 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9편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하신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불확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약속은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부모, 지도자, 멘토 및 교사들은 이 성구를 통해 도전의 시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을 강화하는 행동 양식을 가르칠 기회를 얻는다.

나는 이 주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본부 청남 청녀 회장단은 우리에게 성구를 암기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그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라고 권유한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다 같이 할 때 청소년과 그 가족의 단합과 강화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의 생활에 주제를 반영할 기회는 많이 있다. 가정의 밤이나, 교회 공과와 세미나리에서 주제를 반영해도 되고, 성찬 모임 청소년 말씀 주제로 사용하거나, 상호 향상 모임의 개회 순서에서, 그리고 청소년 활동 즉, 캠프, 청소년 대회, 합동 활동 모임, 새로운 시작 및 영적 모임 등에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해도 된다.

몇 가지 활동 제언

다음은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일 년 내내 반영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이다. 더 많은 제언을 보려면 youth.lds.org를 찾아본다.

“내게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것은 그분 안에서 화평을 찾는 데 중요하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떻게 사셨는지 공부하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데서 화평과 확신을 얻게 된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1895~1985)은 14세였을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저는 그때까지 신문의 만화 면이나 가벼운 서적 등과 같은 책은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저를 꾸짖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펜서 김볼, 너는 그 거룩한 책을 [한 번도 다 읽은 적이 없어. 왜 그랬지?’” 그때 이후로 김볼 회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니파이후서 32:3)



-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관해 공부하는 내용을 학습장에 기록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청소년들이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준 도전 과제, 곧 “매주 시간을 내어 [경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부 공부하”는 결심을 하도록 권할 수 있다. 공과 시간이나 가정의 밤에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발표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자료

- 야고보서 1:22; 모세서 1장
-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39~42쪽.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리아호나*, 2017년 10월호 50~53쪽.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구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한다(혹은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분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큰 화평과 확신이 찾아온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여덟 살 때 대니라는 친구와 모닥불을 피우기로 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불을 피우려던 곳이 바삭 말라 있었고 가시투성이었으며 잡초가 무성한 들판이라는 점이었다. 마침 어린 몬슨 회장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저는 대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잡초에 불을 지르면 돼. 불로 태워 동그란 원을 만드는 거야!’ 대니도 곧바로 동의했으며, 저는 성냥을 구하러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

... 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탄 뒤에 마술처럼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돌에 성냥을 그어 바삭 마른 6월의 풀밭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달은 소년들은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고, 불길은 몇 시간의 노고 끝에 잡혔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대니와 저는 그날 어렵지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순종의 중요성이었습니다.”³

- 청소년들에게 나의 복음을 가르치라 제6장에 있는 순종과 그 장의 마지막에 있는 성품 활동의 순종 부분도 공부하게 한다.
-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가령, 청소년들에게 전자 기기 보는 시간 10분을 경전 공부 10분으로 대체하도록 권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지 물어본다.

자료

- 출애굽기 20장; 마태복음 5:1~12
- “순종,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122쪽.
- 해들리 그리스, “매일 10분 만이라도”, 리아호나, 2017년 9월호, 58~61쪽.
- 로버트 디 헤일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35~38쪽.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주님께 배우고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 영의 온유함으로 걷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방법이다.

온유함은 “인내심을 가지되 분한 마음을 품지 않고 상처를 견딘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에는 힘과 겸손함 두 가지가 필요하다. 1838년 초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토마스 비 마쉬는 교회를 떠났다. 부분적으로는 우유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아내 편을 들지 않았던 것에 분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훗날 자신이 놓쳐버린 축복을 애석해하며 교회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이 어찌다가 배도하기 시작했는지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영을 마음에서 잃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화가 났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떠났고, 경전 말씀처럼 저는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 구주의 삶은 수월하지 않았다. 어려움을 당하여서도 온유함을 보여 주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경전에서 찾아본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에서 어떻게 구주의 모범을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 온유해지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에 관해 생각해 본다.

자료

- 디도서 3:2~5; 모로나이서 8:26; 교리와 성약 112:13
- 율리세스 소아레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11쪽.
- Neal A. Maxwell, “Meekness—A Dimension of True Discipleship,” *Ensign*, Mar. 1983, 70~74.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화평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나, 힘든 시기에도 헤쳐 나갈 방법이 있다는 확신, 또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안도감 등이다.



-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Mormon.org/easter와 이번 호 60쪽과 63쪽에서 찾아본다. 여러분은 어떻게 화평을 찾았는가?
- Mormon.org/easter에서 2017년 부활절 동영상 “평강의 왕”을 시청한다.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공유하며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았던 방법에 관한 간증도 함께 나누도록 권한다.

자료

- 요한복음 14:27; 빌립보서 4:7
-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텔, “평안을 구하는 방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90~93쪽.
- 쿠엔틴 엘 쿡,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2~36쪽.

주

1. Spencer W. Kimball, “Read the Scriptures,” *Friend*, Dec. 1985, inside front cover; see also “What I Read as a Boy,” *Children’s Friend*, Nov. 1943, 508.
2. 리셀 엠 벨슨, “선지자와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3. 토마스 에스 몬슨,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90쪽.
4.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meekness,” merriam-webster.com.
5. Thomas B. Marsh, in *Journal of Discourses*, 5:206–7 (see also “The Faith and Fall of Thomas Marsh,”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eds. [2016], 57~59).



평의회에 앉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더 큰 힘을 실다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머리글

저는 사도로서 성역을 행하는 동안, 스테이크, 와드, 보조 조직 및 가족에서 열리는 평의회와 힘과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의회를 통해 일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달,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의 일원들이 매주 각 조직의 일요일 모임에서 공부하는 교과 과정에 단순하고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최근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직면한 문제와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평의회에 앉[게]”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7:89)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함께 협의하는 법을 배우다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계시와 이해력, 그리고 당신의 사업을 성취할 더 큰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이클 매글비

신권 가족부 교과 과정 책임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평의회를 통해 당신의 사업을 이루셨다.(교리와 성약 121:32 참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평의회에서 그분의 권고를 구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모사[Man of Council, 권고하는 사람—옮긴 이]”로 지칭하셨다.(모세서 7:35)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고대 평의회와 반차”를 회복하기 시작했다.¹ 오늘날 교회는 모든 단계에서 평의회를 통해 관리된다.

최근 몇 달 동안, 교회 본부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일요일 모임을 강화하는 문제를 함께



협의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와서 나를 따르라—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라는 제목의 새 교과 과정이다. 이 교과 과정에서는 연차 대회 말씀이 더 많이 활용되고, 협의에서 비롯되는 힘이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에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칠십인 정원회의 크리스토퍼 골든 장로는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고 평의회에 참석하는 이 변화의 결과로, 우리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칠십인 정원회 일원들은 평의회에 함께 모여, 협의는 어떻게 계시를 불러오고,

단합을 기르며, 힘을 가져다주는지를 토론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와드/지부, 정원회, 그리고 상호부조회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리라 여기며 다음 원리들을 제시했다.

목적의 힘

“너희[가] ... 함께 모여 ... 이 한 가지 일에 뜻을 하나로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였은즉, 그와 같이 너희가 받게 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2:3)

평의회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다.² 달리 말해,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함께 논의하여 계시를 구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한 계시의 경험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1. 초점—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 또는 필요 사항부터 시작한다. 한 가지 문제 또는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능력이 향상된다. 아울러 눈에 보이는 현상(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너머를 보고 근본 원인(무언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방식)을 이해하려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우리는 청소년이 휴대 기기를 들여다보느라 시간을 보내는 문제를 토론했기보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지를 협의할 수 있다.

2. 관점—문제 또는 필요 사항을

질문으로 만든다. 주제를 질문으로 만들면 교리적인 통찰을 끌어낼 수 있다.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될 방식으로 이 상황을 다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더 잘 이해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교리는 무엇인가?”

3. 권능—계시를 구한다. 평의회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단지 모범 사례를 나열하거나 “제가 전에 있던 와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평의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의회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임이 아니라 계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³ 함께 협의하면, 행동으로 이끄는 훌륭한 해결책이 드러난다.

참여의 힘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2)

평의회에서 개인 및 와드/지부 조직의 관심사가 그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로 모이려면, 참석자들은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

1. 평의회 일원들은 각자 필수적인 역할이 있다. 평의회 일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평의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하여

마을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고린도전서 12:21~22)

2. **평의회** 일원들은 **빛을 더하고자** 힘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평의회에서 다루고자 제시된 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할 때는 먼저 자신이 그 주제에 관하여 어둠이 아니라 빛을 던질 수 있으며, 자신은 의로움에 기초하여 이 사안에 반대 의견을 낸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⁴

3. **평의회** 일원들은 **단합하고자** 힘쓴다. 평의회는 일원은 각기 시각은 다르지만, “성신으로부터 인도를 받”고자 힘쓰며 단합한다.⁵ 조셉 스미스는 한 평의회에서 “계시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을 행사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⁶

실천을 위한 계획의 힘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미래에 관련된 교리와 원칙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교리와 성약 101:78)

주어진 계시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면 평의회는 불완전하다. 평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권유받아야 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진 비 빙엄 자매는 이같이 말했다. “평의회가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에게 임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모임과 모임 사이에 일어납니다.”

지도자는 참석자들이 사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평의회를 이끈다. 그런 다음 임무를 지명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둔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웨런 유뱅크 자매는 이렇게 덧붙인다.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자 결속할 때,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성결하게 하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3:9 참조) 성약에서 비롯된 행위의 핵심은 자원하여 임무를 맡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은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니함이라. 이같이 그들이 모두 동등하였고.”(앨마서 1:26)

우리는 평의회를 개선하기 위해,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력의 개념과 거리를 둔다. 주님의 왕국에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의 중”이다.(마가복음 10:44) 마찬가지로, 감리 역원이든 교사든, 평의회는 지도자는 초점을 제시하되, 자신이 스스로 초점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평의회는 일원들이 의견을 내기 전에 자신이 말을 많이 하거나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평의회 지도자는 대략의 목적을 정하고, 토론을 촉진하며, 참석자들이 실천을 결심하도록 권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의회 지도자가 경청하고, 이끌고, 권유하고, 보호하고, 인정해 줄 때, 평의회는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한다.

1. **경청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과 성신에 귀를 기울인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말할 때와는 달리, 들을 때 분별의 은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⁷

2. **이끈다.** 평의회 지도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대화를 이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토론을 재구성하거나 부드럽게 토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3. **권유한다.** 주님은 평의회 일원들에게 골고루 계시를 주신다. 소극적인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유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4. **보호한다.** 평의회 지도자는 발표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비판과 판단에 맞서 발표자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적절하게 의견이 오가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감한 주제는 신중하게 이끌어야 한다. 인비 사항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5. **인정한다.** 참석자들이 의견과 생각을 나누면, 지도자는 감사를 표하고 관련된 생각을 연결지음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인정해 준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인정받을 때, 자신이 계시 과정의 일부임을 느끼고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게 된다.

새로운 교과 과정, 새로운 결심

새해에는 새로운 교과 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결심의 시대가 열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축복으로 누리고 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이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그분의 사업에 관해 공과를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감으로써 “평의회에 앉[아]” 의로운 행동, 즉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그들을 시온으로 밀고 가[는]” 행동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교리와 성약 66:11) ■

주

1. Joseph Smith, in “Minutes, 17 February 1834,” josephsmithpapers.org.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4.4.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패널 토론”(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0년 11월), broadcasts.lds.org.
4.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 92쪽, 번역 수정.
5. 지침서 제2권, 3.3.2.
6. Joseph Smith, in “Minutes, 27–28 December 1832,” 3, josephsmithpapers.org.
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패널 토론.”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매 달 첫 번째 일요일에는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회장단 일원 또는 그룹 지도자가 모임을 이끈다. 이러한 모임은 문제나 필요 사항을 함께 협의하면서 “가르치며 덕을 세[우는]”(교리와 성약 43:8) 평의회이다. 이들 토론은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다른 일요일에는 토론했던 내용과 지명됐던 임무에 관해 보고하고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임무를 만들고 기록한다. 이때는 연차 대회 메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교회 본부 지도자들이 선정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며, 토론은 회장단의 일원, 그룹의 지도자 또는 부름받은 교사가 이끈다. 이러한 토론에서 얻은 느낌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과 변화에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의 영원한 중요성

후 기 성도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전은 남녀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3년 전, 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통해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¹

이 교리는 가족에 관한 우리의 굳건한 입장을 대변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해와 사랑, 연민으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에 관하여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항들과 종교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 관해 몇 가지 지침이 될 원리를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벨라드 장로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9회 세계 가족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힘을 모아 신앙과 가족, 자유를 강화하고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가족에 관한 교회의 믿음

가족에 관한 교회의 믿음이 성립된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나 하늘에서 살았네”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후기 성도는 이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즉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나 오래전에 하늘에서 살았네, 사실이야
 하늘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사랑했지, 너도 그래
 하늘 아버지 아름다운 계획 발표하셨네
 인간에게 지구와 영원한 구원 주시는 계획
 우리 모두 하늘로 돌아가도록 목숨 바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아버지 말씀하셨네
 하늘 영광 구했던 다른 자도 있었다네
 예수님 말씀하셨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영광을 당신께”
 예수님 선택되어 메시아로 오셨네
 그 영광스런 이름으로 악과 죽음 이기시고
 아버지 나 기다리시는 하늘 집에서
 훌륭한 삶 살 수 있다는 희망 주셨네²

이 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필멸의 삶과 영원한 본성, 그리고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원의 계획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생으로 오기 전,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즉 그분의 사업과 영광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핵심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속죄를 통해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우리 각자가 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³ 성전에서 “현세뿐 아니라 영원무궁”한 시간을 위해 결혼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결혼과 가족 관계는 신권의 권세로 계속되어 무덤 너머까지 계속됩니다.(교리와 성약 132:7)

이런 간략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신학이 전통적인 가족과 얼마나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법, 여론은 변할 수 있지만, 사회가 만들어 낸 개념의 가족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결혼과 자녀를 점점 홀대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을 가장 중요한 교리적 요소로 꼽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만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들이 행복을 얻고, 자신을 보완할 누군가와 여정을 함께하며, 사랑이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자신들의 사랑이 자녀들 속에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⁴

남침례교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성약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 남편과 아내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가 있다.”⁵

영원한 가족에 관한 우리의 교리적 믿음과 여타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장려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 대한 세상의 지지

혹자는 이러한 교리와 발언은 논리와는 거리가 먼 종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진실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인식하는 문제에서 의견이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

... 시대와 문화, 신앙을 아우르며 결혼의 아름다움을 언급한 종교적 철학적 문헌은 셀 수 없이 많다. 모든 형태의 예술과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혼은 성별이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나온 것들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은 공정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다. ...

...그들의 관점에서 결혼은 본래 성별이 다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가리킨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사는 진실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선량한 신앙 속에서 이 관점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⁶

연방 대법원은 세상의 진실하고 이성적인 많은 사람이 변함없이 전통적인 결혼을 인정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신앙, 가족, 종교의 자유

이성적이고 진실한 사람들이 결혼을 오직 이성 간에서만 성립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여론은 이를 수용해야 하며, 종교의 자유는 그러한 견해를 보호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명백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러한 견해는 그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학교의 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에 빠진 두 왕자 이야기를 읽어 준 일이 뉴스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 사전 경고나 공지 없이 이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차후에 다시 이 이야기를 읽어 주려거든 공지를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⁷

학교에서 가정의 신념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칠 경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학교의 관리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일까요? 학교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역할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 타협은 어렵고 소원한 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표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인데도 편협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당하며 부당한 처우를 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약 200개 국가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부모의 특권으로 인정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합의했습니다. 이 조약의 제18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가 ...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종교 및 도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⁸

이러한 국제 인권 보호는 가족 선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회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⁹

세태에 역행하는 듯이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고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만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모아 신앙과 가족, 자유를 강화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개중에는 발 벗고 나서서 우리에게서 이러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에서만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위협에 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 동료인 앨런 에이치 옥스 장로님만큼 탁월한 말씀을 하신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온유하며 논쟁을 피하려 힘쓸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키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이나 가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¹¹

설혹 우리와 입장이 반대되더라도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에 진실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힘을 합해 연민과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부모의 바람에 반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어린이들이 겪었듯이, 자기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양성을 무너뜨리고 평등의 잣대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절충안을 마련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상과 신념이 담긴, 다양성이 살아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해 지침이 되는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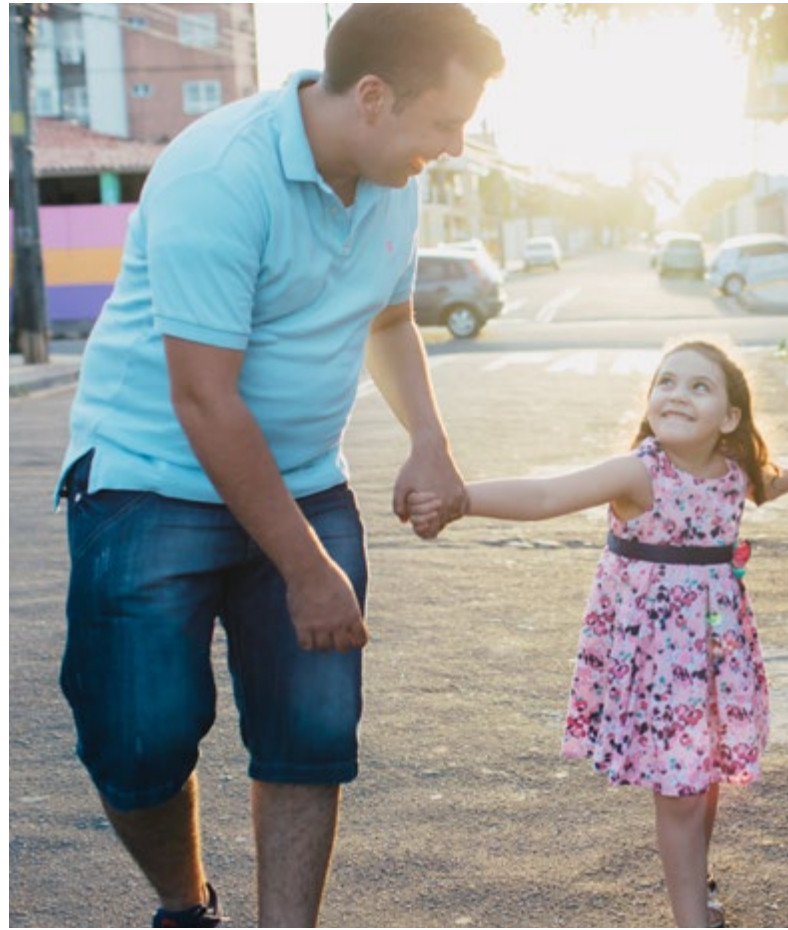
지금까지 저는 전통적인 결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우리의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마태복음 5:44~45)

가족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최고의 인류애를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공격적인 언사와 조롱 섞인 언행은 피하고, 사람들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는 성 소수자들이 맞닥뜨린 문제와 전통적인 종교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줄 법안의 제정을 지지했습니다. 성 소수자들은 이 법안에 따라, 성적 취향과 정체성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강력한 법에 따르면, 뿌리 깊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종교적인 양심 또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¹²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성 소수자 사회 및 유타 입법부와 힘을 모은 끝에 핵심 원리를 손상하지 않고도 이 사회의 분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¹³ 우리는 개인적인 신성한 이상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소외시키지 않고도 그러한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죄를 위해 값을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을 바로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유월절의 잔치, 곧 마지막 만찬을 들기 위해 사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멸의 삶에서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는 가운데, 영감을 주며 삶을 변화시킬 다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남녀간의 결혼이 지닌 이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믿음에 열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념이나



관습과는 별개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이해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특별한 구성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인 하이럼 스미스는 1844년 6월 27일, 구류 중에 폭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후, 박해가 있었고 폭도들은 나부 성전을 짓고 있던 교회 성도들을 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두고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에게 내몰릴 때까지 밤낮으로 성전에 참석해서 그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결합해 줄 성스러운 약속을 맺었습니다.¹⁴

제 친가와 외가의 증조부모들께서는 솔트레이크 밸리로 오는 길에 말로 다 못할 고통과 궁핍을 겪으셨습니다. 개척자 가족들은 죽음으로 서로 헤어져야 했고, 서쪽으로 가는 그 황량한 길에 자녀와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친구들을 묻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신성한 계획을 믿었기에 그들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하도록 가족을 가르칠 수 있는 박해 없는 땅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 길에 앞장섰던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와 신학은 말 그대로 가족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가족, 즉 전세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 지상에 있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우리 각자는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가 우리를 위해 그분이 마련하신 계획의 참된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날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족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¹⁵ ■

2015년 10월 27일에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나 하늘에서 살았네”,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구들 5쪽.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48쪽.
4. “Pope Francis’s Homily at the Family Synod’s Opening Mass,” *Catholic Herald*, Oct. 4, 2015, catholicherald.co.uk.
5. “Basic Beliefs: Family,” Southern Baptists Convention, sbc.net/aboutus/basicbeliefs.asp.
6. Obergefell et al. v. Hodges, 576 U.S. (2015), supremecourt.gov.
7. Teacher, School Sued over Gay Fairy Tale,” NPR, Apr. 27, 2006, npr.org 참조.
8.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hchr.org.
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10. Kevin Jones, “LGBT Grant-maker Wants to Win Religious Liberty Fight within Three Years,” Catholic News Agency, July 29, 2015, catholicnewsagency.com 참조.
11. 델린 에이치 옥스,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6쪽.
12. Dennis Rombo, “LDS Church, LGBT Advocates Back Anti-Discrimination, Religious Rights Bill,” *Deseret News*, Mar. 4, 2015 참조.
13. “Utah Lawmakers Introduce Bill Balancing Religious Freedom and Nondiscrimination Protections,” Mar. 4, 2015, mormonnewsroom.org 참조.
14. *매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302~304쪽 참조.
1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신앙의 초상

십 대에 들어선 어맨다는 삶이 힘겹게 느껴져, 새로운 경험을 찾다 보니 교회와 멀어졌다. 몇 년이 지나자, 어맨다는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행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진: 코디 벨

어맨다 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저는 그렇게 8년 동안 저활동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위독하셨습니다. 저는 무척 우울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했던 게 언제였지?”

그러다 청년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교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부 회장님을 만나서 회개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청년들과 함께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년 주제를 암송할 순서가 되자, 머릿속에 바로 청년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요즘도 청년 주제를 암송할 때마다 제가 속할 곳은 이 교회라는 확신을 새롭게 합니다.

추가 정보

liahona.lds.org에서 어맨다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더 알아본다. 신앙에 관한 기사를 더 찾아보려면 미디어 자료실을 참고한다.

lds.org/go/11839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다.

서로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일 리노이 시카고 남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이 끝나갈 무렵, 나는 특별히 허락을 받고 전에 봉사한 지역을 방문하여 트레미요 가족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꼬박 일 년을 그 와드에서 봉사한 터라 그 가족과 나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저녁을 먹는데, 트레미요 형제님이 집으로 가는 길에 적어도 한 번은 다른 사람과 행복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내게 당부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탈 비행기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타도록 하실 것이라고 형제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는 그때부터 시카고를 떠날 때까지,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바친 희생을 주께서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렸다.

3주 후,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내가 자리로 다가가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나! 이런 일이!”

처음에는 ‘저런, 몰문을 싫어하는군!’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자리에 앉으니 그녀는 자신은 켈리라고 하며 최근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옆자리에 앉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번에는 자신의 옆자리에 몰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앉았는데, 켈리가 새로 찾은 신앙을 두고 불친절한 태도로 의견을 말했다고 했다. 켈리는 심란하고 의문이 들어서 답과 위로를 구하며 기도해 온 터라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한 후에 복음은 참되고, 하나님은 켈리를 포함한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간증했다. 그리고 트레미요 형제님의 권고를 언급하며,

하나님은 오직 켈리만을 위해 이 특별한 순간을 마련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켈리는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차며 내게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장로님은 훌륭한 선교사 같아요. 주님께서 장로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셨다는 걸 전 알 수 있어요.” 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이제 내가 눈물이 나왔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켈리에게 고맙다고 하고, 켈리가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켈리는 몇 가지를 더 질문했고 나는 답해 주었으며, 우리는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우리는 서로 손을 흔들었고, 켈리는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다정하게 나를 축복하신 것에 나는 항상 감사할 것이다. ■

리바이 켈튼, 미국 애리조나

자 리로 다가가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나!”



아픈 아기를 돌보며 부름을 수행하다

어느 날 나는 와드 청녀 조직의 보좌로 부름받게 되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그 일을 할지 걱정이 앞섰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려운 일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름을 받기 석 달 전, 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임신 기간을 거쳐 아들 니콜라스를 출산했다. 아기는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태어난 지 몇 주 후 아기의 눈꺼풀에 작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양성 종양이라면서 돌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양은 무섭게 번져서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를 뒤덮었고, 결국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어렵게 마음먹고 화학 요법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약하다약한 니콜라스의 몸에 치료 부작용이 나타났다. 매일 열이 올랐고, 감염이 가실 줄 몰랐으며, 체중도 줄었다. 그러는 동안 니콜라스는 울음을 그칠 날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름을 수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 갔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고맙게도 남편이 나를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둘 다 내가 부름을

계속해야 한다고 느꼈다. 청녀 회장님도 나를 지지해 주셨다. 청녀 회장님은 충실하고 참을성이 많은 분이셨다. 자매님은 내가 여태 알지 못했던 나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봉사할 길을 찾도록 도와주셨다.

매주 청녀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주사와 검사, 의사로 이뤄지는 일상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 덕분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우리 작은 천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부름은 축복이었다.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어느새 니콜라스는 쑥쑥 자랐고 치료도 마무리되었다. 이제 아들은 힘이 넘치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감한 딸들을 위해 봉사한 덕분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이겨 냈고, 영원한 우정을 쌓았으며, 재능을 발견했고,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책임을 더 잘 이행할 수 있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시련을 덜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온 마음으로 안다. 그분은 내가 어려움과 맞설 힘을 내도록 언제나 기꺼이 돕고자 하심을 말이다. ■

아리엘 케이로스 메이에르 피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청녀 부름을 수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 갔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지붕에서 드린 기도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다락에 올라가 보니 비가 새는 곳이 있었다. 두 쌍의 서까래 사이에 박힌 루핑못 끝으로 똑똑 빗물이 떨어졌다. 몇 해 전에 집을 구석구석 수리해 본 터라 또 다른 곳을 고칠 일이 걱정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던 탓에 자신이 없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붕을 고칠 마음의 여력이 없었다.

한두 주가 지난 뒤, 나는 작업용 칼과 스크레이퍼, 지붕용 접착제를 채운 코킹건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비가 새는 곳을 찾아서 끈끈한 타르로 덮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서 비가 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막막한 심정이었다. 나는 잠깐 손을 놓고, 새는 곳을 막을

수 있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지점을 바로 알려 주시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나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환기구가 눈에 들어왔다. 환기구 옆의 작은 지붕 널판 두 쪽을 떼어 내니 비가 새는 지점으로 보이는 곳이 있었다. 나는 낡고 딱딱해진 타르를 잘라 내고 새 타르를 충분히 바른 뒤 지붕 널판을 교체했다.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울하던 기분이 사라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내가 자랑스러웠다. 다음에 비가 내리는 동안 다락을 살펴보니 새던 곳은 보송보송 말라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 간구하기만” 했던 올리버 카우드리가 생각났다.(교리와 성약 9:7) 나도 올리버 카우드리처럼 내 몫은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곧바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고는, 내 힘으로 “연구”하고(교리와 성약 9:8), 즉 찾아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양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시는 앎심을 배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밸리언트 케이 존스, 미국 미시건주

비가 새는 부분을 찾아야 했지만 어디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놓고 기도드렸다.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 것일까?

나는 어여쁜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훌륭하고 부지런한 아내의 남편이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좋은 직장도 있었다. 삶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내가 머리와 목에 생기는 희소 암의 일종인 비인두암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순간, 내가 살던 그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연례 농구 토너먼트 경기를 개최하던 중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검진을 받은 끝에 비인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삶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인도와 위로를 얻기 위해 진정으로 의지할 데라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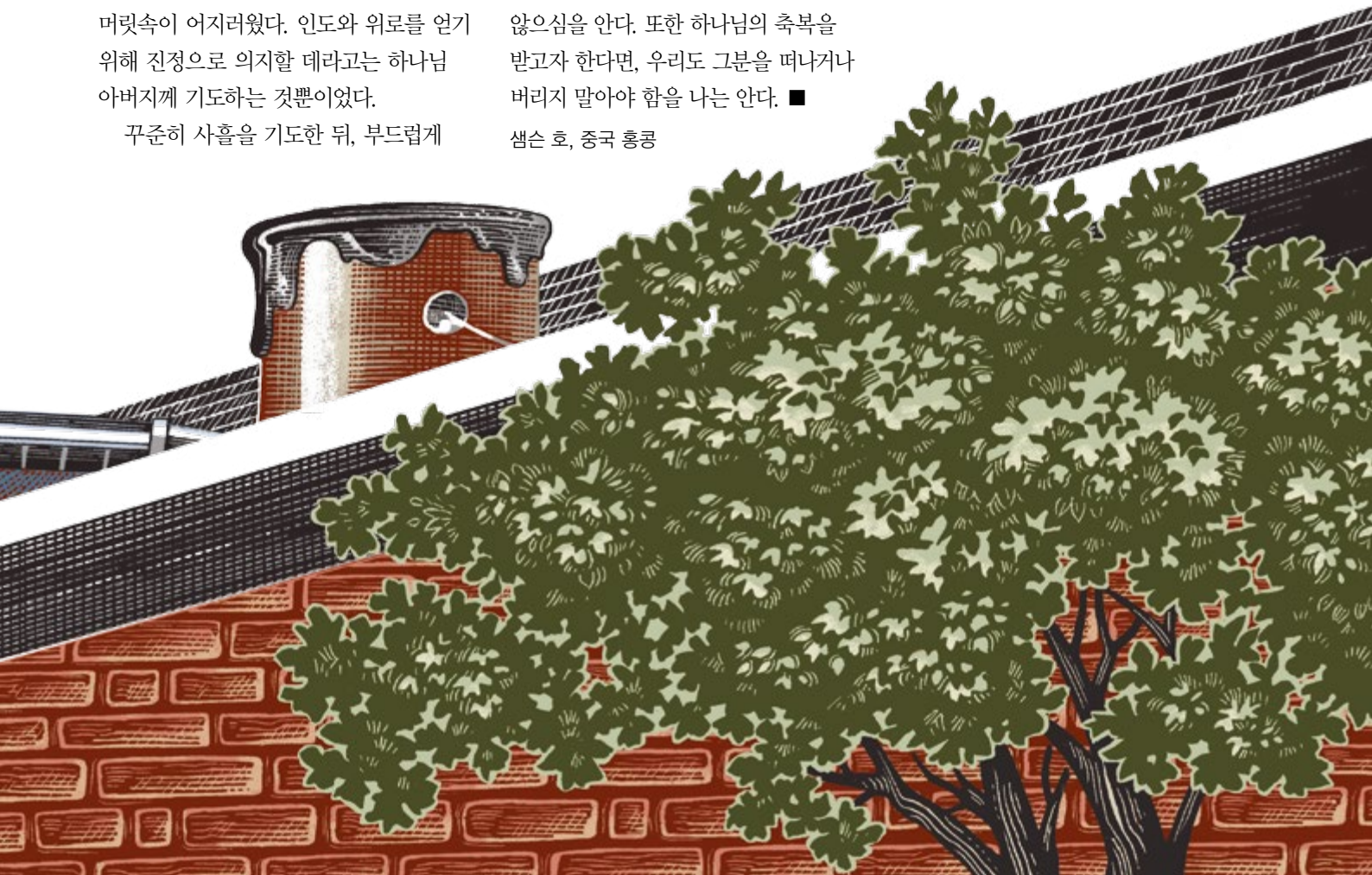
꾸준히 사흘을 기도한 뒤,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느껴졌다. “두려워 말라.”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모든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껏 나를 도와주셨다.

내 병은 18년 이상 꾸준히 차도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더 삶을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만 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심을 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함을 나는 안다. ■

샘슨 호, 중국 홍콩



조기 귀환

데스티니 야브로

우 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선교사로 봉사하셨다. 어릴 때부터 그분들의 선교 사업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언젠가 전임 선교사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날을 꿈꾸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의 하나였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더 가까웠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로 선교사 부름을 받고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MTC)에 입소하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MTC에 있는 자체가 내게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서, 나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노라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헝가리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MTC 교육을 마칠 때쯤, 나는 병이 났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짧게 집에서

쉬던 뒤에, 나는 헝가리에서 선교 사업을 계속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훌륭한 트레이너인 선샤인 네스터 자매 선교사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주님의 친절함 자비와 기적을 어떻게 일상에서 인식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몇 달이 흐른 후 나는 다시 아프게 되었다. 네스터 자매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계속 일했으나, 결국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선교 사업도 “다 마치지” 못하고 가게 되어 주님께 실망을 드렸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르쳤을” 헝가리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병 고침을 받을 만큼 신앙이 충분히 없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주님께 바칠 희생이 1년 반이라는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고대해 온 선교 사업 그 자체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 했다.

선교 사업에서 조기 귀환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의미를 찾을 방법은 많이 있다.

귀환의 의미를 찾음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선교 임지에 두고 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나는 삶에 의미를 가져다줄 일이 귀환해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이유로 선교 사업에서 조기 귀환하게 되었는지 간에,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경험이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한 걸음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결심해야 한다.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귀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범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귀환한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몇 가지 제언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귀환해서도 주님께 봉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예를 들어, 만일 범법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고 아직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규칙적으로 성전에 가서 뜰을 거닐며 언젠가는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아래의 각 단계는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1. 계속 연락함

내가 삶에서 의미를 찾은 첫 번째 단계는 헝가리에 있는 성도들 및 선교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는 것이었다. 한동안은 네스터 자매와 MTC 동반자들에게서 이메일이 오는 준비일만

기다리며 살았다. 때로 동반자들이 보내는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읽거나 너무나 그리운 헝가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의 치유에 정말 중요했음을 깨닫는다.

2. 온라인 색인 작업을 함

직관이 뛰어나신 어머니에게서 살며시 부추김을 받아, 남동생은 색인 작업을 시작해 보라고 나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동생의 요구를 들어줄 셈으로 작업을

했는데, 하루는 화면에 헝가리어로 된 명부가 떴다. 영이 나를 압도했다. 그리고 영은 내가 여전히 헝가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휘장 저편에 있는 영들을 말이다!

3. 목표를 세움

선교 사업에서 돌아오고 보니,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세웠던 인생의 목표는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누워서도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것과 같은 목표를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목표”라고 불렀고 그런 목표를 위해 매일 노력했다.

4. 학업을 다시 시작함

선교 사업을 가기 전에 세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었다. 병 때문에도 그렇고 병원 약속이 계속 잡혀 있어서 수업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터라, 아버지는 브리검 영 대학교 독학 과정의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내게 용기를 주셨다. 이 목표 역시도 누워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였으며, 어찌면 선교 사업을 가기 전에 세운 목표 중 내가 이전에 가능하리라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 온라인으로 선교 사업을 함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데스티니가 온라인으로 색인 작업을

하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이 예상치 않았던 질문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나는 색인 작업을 지원하는 교회 봉사 선교사로 9개월간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사업이었다!*

6. 선교사 준비반을 가르침

건강 상태를 더 잘 관리하게 되자, 나는 온라인으로 선교 사업을 하면서 지역 전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종교 교육원에서 선교사 준비반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르치는 동안 나는 선교 사업을 위한 나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과 짧은 선교사업 동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7. MTC에서 자원봉사를 함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친 후 나는 BYU에 다니기 위해 미국 유타주로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프로보의 MTC 옆을 지날 때마다 착잡한 심정을 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매주 MTC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헝가리로 가는 훌륭한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나는 치유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8. 성전 사업을 행함

성전에 제출할 이름을 거의 15만 개나 준비해 온 에디트라는 한 헝가리인 자매는 내게 그 이름 중 일부를 성전에 가져가도록 부탁했다. 이 헝가리인들을 위해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기뻐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점차 치유됨

선교 사업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꿈이었다. 그러므로 예상보다 빨리 귀환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상실감이 들었다. 한동안은 선교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 나는 실패했다는 느낌을 극복해야만 했다.



선교 사업의 가치는 봉사 기간이 아니라 봉사하려는 열망으로 판단해야 함을 배워야 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러한 단계를 밟으며 마음의 치유도 이루어졌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헝가리로 다시 가면 감정적으로 견뎌 내지 못할까 봐 걱정했었다. 마침내 그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그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았다. 나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뻐했다. 그제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주의 속죄가 지닌 치유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산다.

*많은 조기 귀환 선교사들이 교회 청년 봉사 선교사로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을 만나 본다.



받아들일 만한 헌물

“내가 사람의 아들[혹은 딸] 가운데 어떠한 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어,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려고 가서 자기들의 능력을 다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하여 부지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는, 보라, 그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의 손에 더 이상 그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물을 받음이 내게 마땅하다.”

—교리와 성약 124:49

부모를 위한 조언

다음 목록은 부모가 고려할 사항이다.

- 선교사인 자녀가 슬퍼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선교사인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주 말해 준다.
- 그/그녀가 정기적으로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을 만나도록 권유한다.
- 선교사인 자녀에게 그/그녀가 귀환한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 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본다.
-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나갔던 자녀가 귀환했으며 그/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알린다.
- 선교사인 자녀가 선교 사업에 관해 여러분과 이야기할 시간을 주며, 훌륭한 경험과 힘들었던 경험을 모두 나누게 한다.
- 선교사인 자녀가 인생에서 무엇을 다음으로 할지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선교 사업을 하러 되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든 그/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준다.

회원들을 위한 조언

선교사들이 조기 귀환을 할 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난감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선교사로 봉사한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그들이 가정생활에 다시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선교사가 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의 예상과 아주 다를 수도 있다. 그들이 겪게 될 치유의 과정은 그들과 주님 사이의 문제며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것을 명심한다.

안전한 환경에서라면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다. 그들이 자신의 선교 사업에 관해 말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귀환 선교사에게 공과 시간에 발표를 부탁하고 싶다면, 미리 전화를 걸어 발표해도 괜찮을지 물어본다.

회원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지도자들은 ministering.lds.org에서 조기 귀환하는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종교 교육원에서 복음을 더욱 잘 배우는 방법

종교 교육원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자.

포 니엔 (펠리페) 처우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 세상에는 ...
전보다 더 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선교 사업과
행복한 미래의 삶이라는 두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방해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응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살고
있다.¹

교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종교 교육원을 마련했다. 종교
교육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의미 있[고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²

종교 교육원에서는 여러 과정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교사들은
청년 성인 여러분의 필요와 질문을
이해하며 여러분이 경전 및 후기 성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도록
도와줄 것이다.

최근 종교 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향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할 목적으로 (1) 과정별
학습 일지와 (2) 과정별 질문, (3) 개인
학습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선택
방안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복음을 공부하며 어떻게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지를 직접 배우게 된다.

과정별 학습 일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는 떠오르는
느낌을 일지에 기록할 것을 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영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안전한
곳에 적어 두십시오. 소중한 느낌들을
기록한다면, 그러한 느낌이 더욱 자주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³

학생들은 종교 교육원 수업 중이나
가정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떠오르는 느낌을 학습 일지 혹은 복음
자료실 앱의 노트를 활용해 기록한다.
필리핀 종교 교육원의 학생인 제이미
덴즈는 학습 일지 기록의 유익을 잘
알고 있다. “경전이나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구절과 메시지를 적으면 복음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으니 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 나고야 종교 교육원에서
셰이치 다카하시 형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학습 일지 기록을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배우는 과정이
순조로워”지며, 학생들도 더 잘 준비하여



수업에 와서 배우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남부의 타이시아 바톨로메오는 이렇게 말한다. “배운 것을 기록하면 필요한 순간에 그 개념을 떠올리기가 더 수월합니다.” 타이시아와 같은 수업에 참석하는 마리아테라자 샌토로는 이렇게 덧붙인다. “저는 구체적인 영적 개념이나 개인적인 계시가 필요할 때 일지를 찾아봅니다.”

과정별 질문

교과 과정의 도입부에 수록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논제들을 깊이 생각하며 공부한다.

학기말이 되면, 학생들은 영의 인도로 얻은 개인적인 답을 교사에게 제출한다.

이탈리아 남부의 일라리아 벨로모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그 질문들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또, 종교 교육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죠.”

한국 종교 교육원의 학생인

정진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정별 질문이 있어서 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검토하고, 상고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한 스테이크 종교 교육원 교사인 강선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읽으며 그들의 간증과 생각을 알아 가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개인 학습 프로젝트

종교 교육원에 등록된 많은 학생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복음과 관련 있는 미술 작품, 음악, 영상을

만들고 소셜미디어 글을 게시해 왔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행한다. 예컨대, 한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 과정을 공부하며 구주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다.

“영원한 가족” 과정을 들던 한 학생은 성전 및 가족 역사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 프로젝트의 백미는 할머니를 비롯한 직계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 학기 동안 준비한 기록을 가지고 모두 40번의 성전 인봉을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필리핀 비콜의 종교 교육원 학생인 세니아 알비라 오가니스가 말하듯, 개인 학습 프로젝트는 “재량껏” 실행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을 느끼게 된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학습에 접근하면 복음 학습을 향상하고 간증도 강화할 수 있다. 종교 교육원 과정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1.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67쪽, 번역 수정.
2. “권능으로 가르침”, lds.org/si/objective/elevate-learning/teaching-with-power.
3. 리차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쪽.





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그리스도의 화평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회장(중앙); 캐럴 에프 맥콩키, 제1보좌(왼쪽);
닐 에프 매리엇, 제2보좌(오른쪽)



스티븐 더블유 오언 회장(중앙); 더글러스 디 홈즈 제1보좌(왼쪽);
엠 조셉 브로 제2보좌(오른쪽)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

소란과 각기 다른 표준들, 유혹, 혼란스러운 철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로 늘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교리와 성약 19편 23절에(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주신 약속에는 평화를 얻을 확실한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저희는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으로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에서 그 사실을 목격했으며, 여러분이 이 방식을 따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화평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양과 능력, 잠재력에 대해 걱정하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과 염려가 단번에 사라지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만사가 잘 되리라는 조용한 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럴 때 큰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이 경전 구절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내게서 배우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현명하고 친절하며 다정한 분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자랄 것이며,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소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 그리고 성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들을 흡족히 취하고 상고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구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몰몬경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조셉 스미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몰몬경은 지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¹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201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매일 몰몬경을 읽도록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²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구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온유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그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낫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이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배우고, 귀를 기울이며, 구주와 함께 걷는 세 가지를 행한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함, 낙담함을 느끼든지 그분께서 돌보아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권능 또한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 구절을 암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둠의 안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짓누르더라도 여러분은 이 구절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방식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하고 틀림없는 기초 위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3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몰몬경의 권능”,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6~8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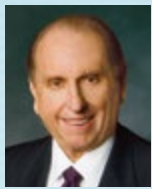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화평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교리와 성약 19:23

교리와 성약 19편 23절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열쇠를 알려 주셨다.



1 내게 배우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께서² 단순한 교사가 아니셨음을 압니다.

마음과 영혼, 생각과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분은 위대한 교사이자 완전한 삶의 본보기이십니다. ...

‘와서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친절한 권유에 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받게 됩니다.”

토머스 에스 몬슨 회장, “내게 배우라”, 리아호나, 2016년 3월호, 4,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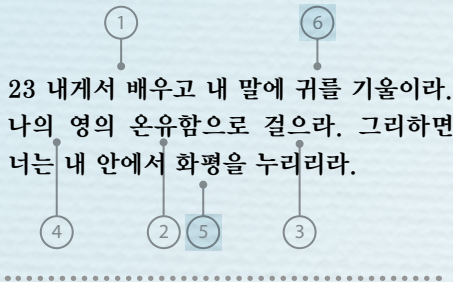
2 온유함
온유함이란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경전 안내서, “온유한, 온유”, scriptures.lds.org)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시련을 견디다면, 우리가 그분께 개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112:13 참조)

3 걸으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반드시 배우고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배우고 경청한 대로 걷고 행해야 한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자의 길”,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8쪽, 번역 수정)



5 내 안의 화평
“평화는 엄청난 부, 권력 또는 명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 오락, 또는 여가 생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넘칠 만큼 얻는다 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나 평화는 누릴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자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이사야 9:6]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4쪽)



23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4 나의 영
온유함은 “성신의 방문”이 임하게 하며(모로나이사서 8:26),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이다.(갈라디아서 5:22~23)

6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청하기 위해 배워야 하며, 그런 뒤에는 주님께 배우기 위해 경청해야 합니다.”(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배우기 위해 경청하라”,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24쪽, 번역 수정)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

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그리스도의 화평

작사, 작곡:
닉 데이

사려깊게 ♩ = 72

Ab Eb Ab Cm Ab Bb

5

1. 그리스도의 화평 누리 리 우 리 죄 지
2. 갈릴리 길과 에루살렘 길 그 분과 함

Ab Eb Ab Cm Ab

(작게 표시된 음은 2절 부를 때 친다)

8

신 그 분 - 사 랑 느 끼 네 그 분 말 씀 을 듣 고 행 하
계 길 고 - 화 평 누 리 리 상 한 마 음 과 흠 린 눈 물

Ab Bb Ab Eb Ab Eb Ab

11

며 그 의 참 모 습 알 면 - 화 평 있 으 리 평 좌 절 속
치 유 하 시 는 그 분 - 그 분 의 화 평

Cm Ab Eb Bb Ab Eb

14

에 - 회 망 주 며 포 기 할 때 나 아 갈 힘 주

Ab Cm Bb Eb Ab Cm

17

며 역 경 가 운 데 — — 보 호 하 시 네 세 상 에 는 없

17 B \flat E \flat A \flat B \flat Cm 7

20 To Coda Θ 1. 2.

는 그 분 의 화 평 평

20 A \flat B \flat E \flat A \flat E \flat

23 A \flat B \flat E \flat A \flat B \flat E \flat A \flat B \flat

28 D.S. al Coda

좌 절 속

28 Cm E \flat A \flat B \flat E \flat

31 Θ CODA

평 세 상 에 는 없

31 Cm E \flat

32

는 그 분 의 화 평

32 A \flat B \flat E \flat A \flat Cm A \flat B \flat A \flat E \flat

© 201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본 문구는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함.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구주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이제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도 더 커졌지만,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물문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 17년 1월에 열린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저는 모임을 시청하는 분들께 구주에 관한 간증을 키우기 위해 매주 시간을 들여 다음과 같이 해 보시기를 권고했습니다.

- 구약전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모두 공부한다.
- 신약전서에 기록된 그분의 율법을 공부한다.
- 물문경에 기록된 그분의 교리를 공부한다.
-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한다.

저는 모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께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워 나간다면,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또한 난생처음 이와 똑같은 과제를 완수해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참됨을 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 1일에 새 경전을 마련하여 다가올 1월에 청년 성인들에게 권고할 똑같은 과제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권의 경전에서 2,200개가 넘는 성구를 찾아보고 표시한 끝에 6주가 지나서 이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¹

그렇게 과제를 완수하고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넬슨 회장은 6주에 걸쳐 자신의 과제를 완수했다.

“저는 아흔세 해 동안
살면서 그중의 많은
시간을 바쳐 구주에 관해
공부했지만, 이 6주 동안
공부한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1월에 열린 넬슨 회장의 영적 모임을 시청하거나 읽어 보려면 [lds.org/broadcasts](https://www.lds.org/broadcasts)에서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을 클릭한다.

제가 가장 뜻깊었던 부분은, 구주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회복의 시대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본인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그 이야기는 동일하며, 이야기의 화자 또한 동일합니다.

저는 아흔세 해 동안 살면서 그중의 많은 시간을 바쳐 구주에 관해 공부했지만, 이 6주 동안 공부한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그분에 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에, 앞으로 전하고자 현재 준비 중인 말씀에서 제가 배운 많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²

이 과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조셉 스미스가 이론 업적의 신성성에 관해 새로운 간증을 얻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한 덕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계시와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점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빠른 속도로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성경과 몰몬경을 오가며 두 경전을 참조하고 연관 지을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도 더 커졌지만,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몰몬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도저히 이런 과제를 해낼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을 해낼 만한 시간을 마련할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신앙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해야 했습니다. 신앙을 행사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한다면, 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이 일을 해내겠어.”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이 일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겨우 6주 만에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며 구약전서, 물문경, 신약전서, 교리와 성약에서 얻게 되는 배움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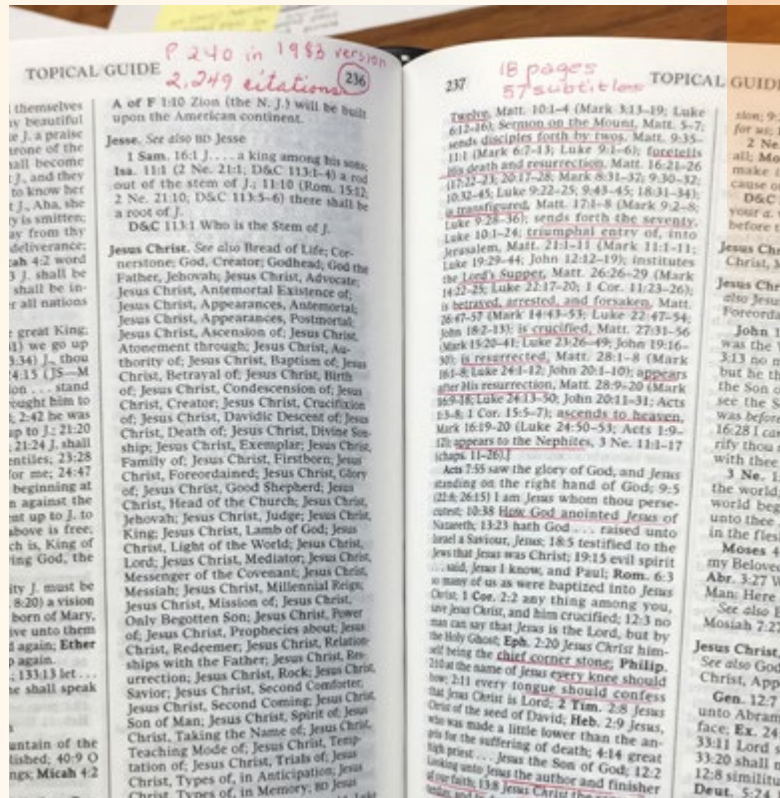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한다면, 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점이 달라지고, 지식이 자라며, 깨침에 깊이가 더해짐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삶에서 그런 보상을 얻어 보았기에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제가 영적 모임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장차 구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있다는 사실로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타인에게 보인 불친절한 행동을 모두 용서해 주셨으며, 이생에서 우리가 받은 불의와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몸 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을 해낼 힘을 주셨고, 나약함은 강인함으로 바뀌 주셨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가족과 영원히 살 길을 열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속죄,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봉사하고 이끌기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그분과 같이 될 힘 또한 커지리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참됨을 압니다. ■

lds.org/blog의 글에서 발췌.



벨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관련된 2,200여 개의 성구를 공부했다.

주

1. 벨스 회장이 영적 모임에서 제안했듯, 우리도 경전 안내서를 참고하여 예수 그리스도 항목에 포함된 참조 성구를 찾아볼 수 있다.
2. 201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벨스 회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참조.

일요일에 축구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월이 뛰어난
팀에서 뛸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축구, 일요일, 그리고 영적인 배치기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나는 어려서 친구들과 함께 “점프 아니면 다이빙”이라는 놀이를 하곤 했다. 기본적으로 깊은 웅덩이나 호수, 그리고 다이빙 보드처럼 뛰어내리는 데 쓸 것만 있으면 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놀이는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점프”라고 외치면 발을 먼저 물에 넣어야 하고, “다이빙”이라고 외치면 손을 먼저 물에 넣어야 한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이 말에 반응하려면, 보통은 프레첼 과자처럼 사방으로 팔다리를 꼬아 대거나 정말 고통스럽게도 배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인생을 “점프 아니면 다이빙” 놀이처럼 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훨씬 일찍 결정을 내림으로써 영적으로 배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 여호수아는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다.(여호수아 24:15; 강조체 추가)

월 더블유(14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결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치기를 해야 하는 일이 분명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해 둔다면 모든 것이 훨씬 간단해져요. 파티에 갔는데 누군가가 술을 준다고 해 보죠. 그 순간에 마실지, 마시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마셔 보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술을 권하면 ‘아니요’라고 말하겠다고 오래전에 미리 결정해 두었다면, 훨씬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유혹은 끼어들 틈도 없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다음과 같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운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고리와 성약 19:23) 월에게 화평이란, 확신하는 마음으로 옳은 일을



선택하고, 다른 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미리 결정해 두었기에 이러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

“때때로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제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살아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가 말한다.

월과 그의 가족이 오래전에 약속한 것 중 한 가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월이 최고의 축구팀에 들어가자 이 결심을 지키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하지만 월의 가족은 니파이처럼 “주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니파이전서 3:7)

축구는 월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월의 어머니는 말한다. “월은 축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월은 축구를 해야 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아이는 축구에 열정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은 그 지역의 최고 팀 중 한 곳에 들어가자 전율을 느꼈다. 유일한 문제는 그 팀은 일요일 경기가 많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팀은 일요일마다 경기에서 빠질 선수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일요일 경기를 뛰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팀에서 포지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월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이 서 있었다.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각이었다.

월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다. 그런

다음 월은 어머니와 함께 팀의 감독을 찾아가 자신들의 믿음을 설명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독은 일요일에 경기를 뛰지 않아도 좋으니 월이 팀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월은 말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다른 선수들처럼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일요일 경기가 갑자기 다른 날로 바뀌는 등의 축복을 저는 경험해 보았어요. 또 저는 하루를 쉬기 때문에 축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은 더 나아졌다. 월은 곧 같은 팀에 교회 회원인 선수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선수 또한 몇 달 동안 월과 함께 경기한 후, 월의 모범을 따라 일요일 경기에 출전하기를 그만두었다.

순종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여러분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그러니 지금 결심하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목표,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것을 여러분께 간청합니다.”(“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8쪽)

인생을 “점프 혹은 다이빙” 게임으로 몰지 말자. 영적으로도, 혹은 그 어떤 이유로도 배척기를 감행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선택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시는 화평을 누리 보자. ■



나의 이상한 이웃

사만다 베스트

몇 해 전,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에 우울해하고 있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도 없으니 더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외삼촌과 외숙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은 다 괜찮아도 이웃집 아저씨와 대화하는 건 안 된다고 하셨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 이웃은 이상한 사람이라며, 나를 겁줄 생각으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셨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그 이웃과 내 또래 십 대 여자아이 두 명이 내게 울타리 만드는 것을 도와 달라고 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하고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켜보니 이들은 멋진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나는 많은 것을 물었고, 친구들은 내 질문에 답해 주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이웃집 아저씨는 내게 다음날 함께 교회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그때는 워낙 힘든 시기였기에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지나 교회로 들어가는데 곧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선교사들을 소개받았고, 그들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내게 다양한 공과를 들려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에 이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으며 영적인 두 명의 선교사를 내게 보내 주셨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도 그들이 지닌 복음 지식을 얻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관한 지식이 있었기에 시련의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그 말을 듣자 그들의 말이 정말인지 알아보려면 기도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도를 마치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편안해졌고, 또 침착해졌다. 그날 밤 나는 성신을 통해 응답받았음을 알았다.

이 지식을 통해 나는 빠르게 간증이 자랐다. 내가 2013년 교회에 들어오고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관한 지식은 분명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권유해 준 내 이웃에게 감사한다. ■

글쓴이는 호주 빅토리아에 산다.

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이웃과 함께 교회에 나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신앙을 행사하여

친 구 어프리와 함께 탁구를 하는데 현관문을 세 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지역 방언인 힐리가이논어 억양이 어설피게 들어간 낮은 목소리였다.

어프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으로 달려 나갔다. 어프리가 나를 보고 말했다. “이리 와! 내 친구들을 만나 보면 좋겠어!”

그들은 하얀 셔츠에 벅타이 차림이었고, 어프리 남동생에게 침례 토론을 가르치러 온 것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영어로 이야기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자신들이 어프리 동생에게 토론을

가르치는 동안 통역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냥 말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가르친 말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면서 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전에는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행복한 느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일을 겪은 뒤, 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도 토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찾아오자, 우리 부모님은 몰몬은 절대로 집에 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말씀하셨다.

나는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에 신앙을 행사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 년 후, 나의 단순한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 어린 도움에 힘입어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아버지는 내 침례 동의서에 서명해 주셨다. 회복된 복음에 관한 내 간증이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

아넬 엠,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

초등학교에서 청녀로

나는 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떠나 청녀가 되자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낯설었다. 청녀는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 노래 부르기 시간도, 함께 나누는 시간도 없었다. 주중에는 상호 향상 모임도 있었다.

나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편안해지기를 바랐기에 새로운 일정에 적응해 보기로 했다. 나는 많이 기도했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다른 청녀들과 유대감을 쌓기 시작했다.

여러 주가 지나자, 내가 왜 청녀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었고, 매주 소소한 친절을 베풀 기회가 더 생겼으며, 주님의 집인 성전에 가서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청녀 조직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하다. ■

베서니 더블유, 미국 플로리다주

깨끗한 영혼이 대회보다 더 중요해

나는 8학년 때 독서 모임에 들어갔다. 우리는 매달 모여서 책 한 권을 주제로 토론했고, 연말이 되면 매달 토론한 책에 관하여 제일 많이 아는 팀을 가리는 대회를 열었다. 우리가 늘 고수했던 한 가지 규칙은 건전한 책만 읽는 것이었다.

한번은 다음에 토론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건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팀이 대회에서 이기길 바라다면 그 책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우리 팀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몇 장을 더 읽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결국 나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책을 읽을 수는 없었다.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 대회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지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독서 모임 전날 밤, 나는 팀원들에게 이야기할 용기를 내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튿날은 더 걱정되었다. 팀과 함께 앉아 있는데 모임이 시작되었고, 나는 책을 읽을 수 없었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독서 모임의 회장이 일어나 사과를 했다. 회장은 그 책을 읽지 않은 채 독서 목록에 넣었기에,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미처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 책을 목록에서 빼겠다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우리가 표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안다. 주님은 내게 하셨듯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다. ■

애슐리 에이, 미국 유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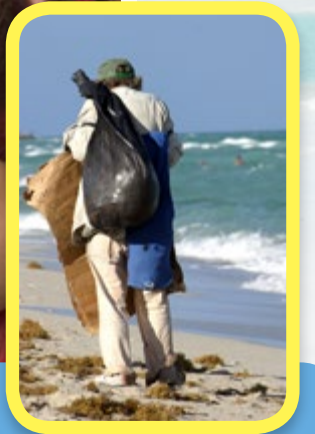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리아호나는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Liahona.lds.org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출해 주세요. (“기사 제출하기” 클릭)

음식과 미소를 함께 나눠요

우리는 샘과
애너스테이지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빛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빛을
비추려고 해요.



1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고, 누구나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 음식 키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2

음식 사기

친구인 조아가 저렴한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물건 사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3

비상 음식 키트 만들기

그라놀라바, 치즈를 뿌린 막대 빵, 그리고 다른 맛있는 음식을 넣었죠. 샘도 하나 먹어 보았어요!



4

기분이 좋았어요!

비상 음식 키트를 나누니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5

음식 키트 더 많이 만들기

엄마는 이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올려 주셨고, 청년 독신 지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어요. 청년

독신 지부에서는 우리 지역 노숙자 쉼터에 비상 음식 키트 100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쉼터는 비상 음식 키트를 활용해서, 노숙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나요?

- 가족과 함께 봉사하고 싶은 일을 골라 보세요.
- 십일조 봉투에 금식 헌금을 넣어서 감독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거예요.

별을 보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비추나요? 별을 보낼 때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71쪽을 읽어 보세요.



멀린 왓킨스
실화에 근거함

“경전을 읽기 좋아하니 난 항상 읽지요 내 마음속에 경전 참됨을 증거하는 간증 자라네”(어린이 노래책, 66쪽)

루시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기를 바랐어요. 루시아는 서둘러 학교를 나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프리카 해안의 작은 섬에 사는 루시아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다들 루시아를 놀리며 다르다는 이유로 같이 놀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때때로 선생님들은 루시아가 손을 들어도 못 본 척하셨어요.

“하지만 오늘이 최악이었어!” 루시아는 이렇게 생각하며 길에 있는 작은 돌맹이 하나를 발로 찼어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루시아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 주셨어요. 그 구절들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신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선생님은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루시아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트렸어요.

루시아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신은 다른 분이 아니신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갑자기 기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교사님에게 여쭙보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매일 루시아네 동네에 오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나를 도와줄 방법을 아실 거야!” 루시아는 생각했어요.

집에 오니 브라운 자매님과 루이스 자매님이 계셨어요. 지붕 위에 있는 물탱크로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을 돕고 계셨죠.

루시아가 받은



루시야는 곧바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나요?”

브라운 자매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서, 도움이 될만한 경전 구절을 찾아보도록 해요.”

엄마가 소고기 토마토 스투를 만들어주셨지만, 루시야는 먹는 등 마는 등 했어요. 답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점심을 다 먹었어요. 루시야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경전을 펼쳐서 조셉 스미스의 시현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 후에는 예수님의 침례 이야기를 읽었지요. 두 부분의 경전 구절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신이 각각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왜 그분들이 같은 분이라고 하나요?” 루시야가 물었어요.

브라운 자매님이 경전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 보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며 구절을 읽었어요. 경전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사도들 또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루시야가 세어 보니 예수님은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루이스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두 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들의 믿음과 행동은 하나가 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루시야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성신의 느낌이라는 것을 루시야는 알았어요. 성신은 루이스 자매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루시야는 두 분이 모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다.

응답

루시야는 선생님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루시야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경전에서 도움을 얻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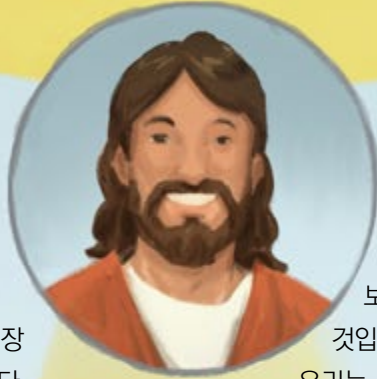
저희 초등학교 교사님은 질문이 있을 때 경전에서 답을 찾으도록 도와주셔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쭙보았어요. “왜 요즘은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선생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을 찾으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경전을 통해 제 질문의 답을 얻는 것이 좋아요.

에밀리 아이, 10세, 잉글랜드 서머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러분의 빛을 환히 비추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의 빛을 밝혀
다른 사람이 보고 따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의 불꽃을 계속 밝게 비출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의의 **햇불**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5:16)

우리가 빛이 되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며, 매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는 집안 식구든 친구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켜면 빛으로 가득 차는 것과 같이, 의로운 모범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디모데전서 4: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언제나 알려지고, “세상에서 ...
빛”이 될 수 있습니다.(빌립보서 2:15) ■



“Be a Light to the World”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
2011년 11월 1일)에서 발췌함,
speeches.byu.edu

여러분의 별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주변 사람에게 봉사하고,
간증을 나누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별을 리아호나로 보내서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1. 비치는 종이 한 장을 대고 이 별의 모양을 따라 그리세요. 그 안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거나 그들을 도움으로써 어떻게 밝게 빛나고 있는지 써 보세요.
2. 별을 자른 후, 그 사진을 찍거나 별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찍으세요!
3.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liahona.lds.org에 제출하세요. ("기사 제출" 클릭)



제3니파이 17:7, 9

제3니파이 17:21

요한복음 8:10~11

경전 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한 경전 구절을 읽고
별에 색칠하세요.

제3니파이 11:13~15

요한복음 11:33~44

마가복음 10:46~52

루카스와 그를 괴롭히는 친구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루카스는 통쾌해하면서 페드로의 얼굴을 보았어요.

에릭 비 머독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집에 있으나 어디나.”(찬송가, 151장)

“이런! 저기 페드로가 온다!”

페드로는 학교에서 걸핏하면 친구를 괴롭히기로 유명했어요. 몸집이 크고 심술궂은 아이였지요! 친구들에게 욕하고, 점심을 뺏어 먹고, 운동장에서 쫓아다녔어요. 아무도 페드로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페드로는 루카스와 루카스의 친구 아서 옆을 걸어가면서 “바보들”이라고 말하며 아서를 밀쳤어요.

루카스는 페드로의 심술궂음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무심결에 “그만해, 페드로!”라고 소리쳤어요.

루카스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질 나쁜 친구에게 맞선 거예요!

페드로는 달려와 루카스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루카스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에서 툭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페드로가 말했어요. “너 이번엔 경고지만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는 루카스를 떠밀고 가 버렸어요.

그 후로, 루카스는 페드로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페드로는 매번 루카스를 찾아냈어요. 루카스가 그네를 못 타게 했고, 피구 할 때는 밀치고, 식당에서는 발을 걸었으며, 항상 나쁜 말을 했어요.

어느 날 루카스와 아서가 아서의 축구공을 가지고 놓고 있었어요. 페드로가 갑자기 나무 뒤에서 튀어나오더니 공을 집어갔어요.

“제발 돌려줘,” 아서가 말했어요.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페드로는 루카스를 나무에 밀치더니 크게 웃었어요.

루카스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페드로, 너 그거 알아?” 루카스가 말했어요.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 제일 못됐어! 너를 좋아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 다 너가 영원히 떠나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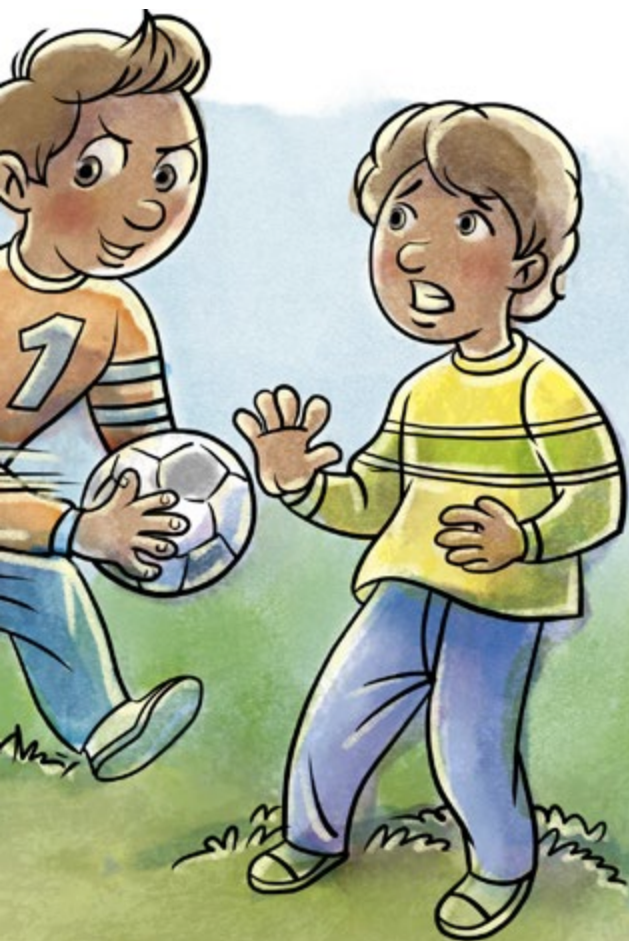
페드로는 웃음을 멈추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루카스는 통쾌해하면서 페드로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는 울음을 터뜨리려는 것일까요? 페드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루카스는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내내 아무리 노력해도 안 좋은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루카스는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적였어요. 페드로의 슬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페드로 같은 아이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지?’ 루카스는 생각했어요. ‘개는 다른 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괴롭히잖아. 난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루카스는 자신이 자신과 친구를 위해 그 아이에게 맞선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나쁜 말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루카스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루카스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루카스가 “아멘”이라고 말하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다음날 점심 후에, 루카스는 벽에 혼자 기대어 서 있는 페드로를 발견했어요. 루카스는 긴장이 되었어요. 페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루카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다가갔어요.

“저기, 어제 일은 미안해.”

페드로는 놀란 얼굴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응. 너한테 진짜 나쁜 말을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페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신발을 쳐다보며, “괜찮아.”라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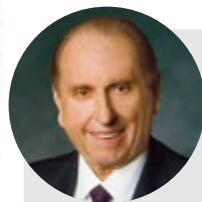
종이 울렸어요. 루카스는 다시 교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하지만 페드로에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루카스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괜찮으면 내일 쉬는 시간에 같이 축구 할래?”

페드로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좋아”

그 후로 페드로는 점점 나아졌어요. 아직도 아이들을 가끔 괴롭히긴 했지만, 예전처럼 못되게 굴진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루카스하고 몇 번 놀기도 했어요. 아주 재미있게 놀았어요! 학년이 끝날 무렵, 페드로는 루카스에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한 말이 루카스를 놀라게 했어요.

페드로가 말했어요. “내 친구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 내가 못되게 굴었을 때도 말이야.”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느낌을 통해, 루카스는 친절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항상 친절할 말을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북돋아 주고
고양시키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등대”,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114쪽.



클라우드미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모로니와 정비공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니파이후서 30:12)

수 년 전에 우리 가족은 친척들을 방문하고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 가파른 길로 들어서자마자, 우리 차가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다시 차의 시동을 켜 보려고 했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 차들이 끝없이 우리를 지나쳐갔지만 아무도 멈춰서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

마침내 저는 가족에게 기도하자고 말했습니. 제 여섯 살 난 아들 모로니가 말했습니.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벌써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니?” 제가 물었습니.

“저희에게 꼭 알맞은 사람이 와서 저희를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고 모로니가 대답했습니.

곧 저희 차 뒤에 밝은 등 두 개가 비쳤습니.

견인차였습니. 그리고 그 차의 운전자는 정비공이었습니.

“운이 좋으시네요.” 그가 말했습니. “오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는 우리의 차를 고쳐 주고 우리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뒤를 따라왔습니.

저는 모로니에게 이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 “물론이죠” 하고 모로니가 대답했습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젠 저만의 간증이 생겼어요! 더이상 아빠의 간증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모로니의 신앙 깊은 모범에 저는 감동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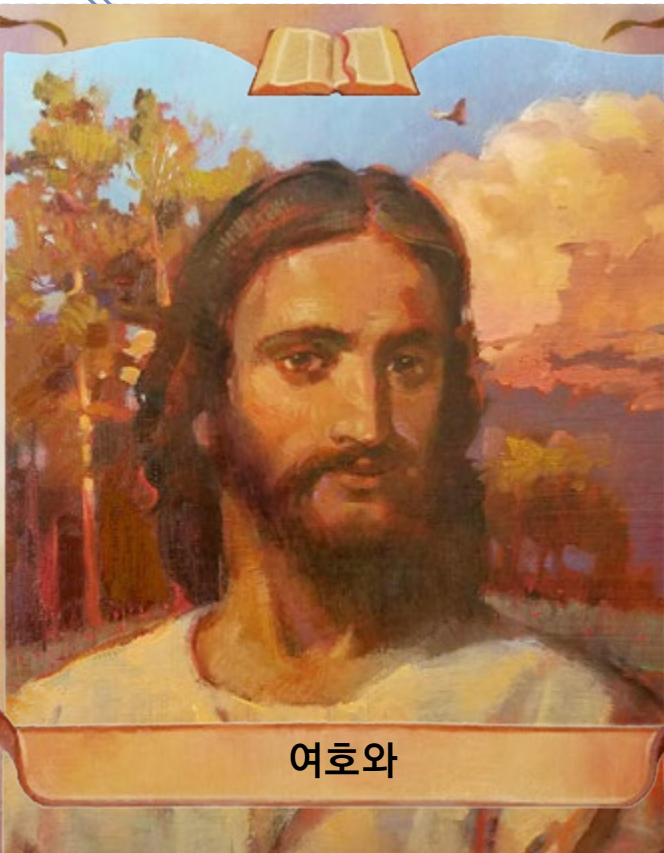
모로니는 이제 성인이지만, 그가 어렸을 때의 그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것을 저는 아직 기억합니. 어린이일지라도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 ■

나는 경전을 읽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경전 한 구절을 읽은 후, 그림에서 동물 한 마리를 찾아 색칠하세요!

1. 아브라함서 3:24~28
2. 모세서 2:1~13
3. 모세서 2:14~25
4. 모세서 2:26~31
5. 아브라함서 5:1~7
6. 히브리서 5:8~9; 앨마서 12:33
7. 모세서 1:39
8. 시편 82:6; 로마서 8:16



여호와

여호와와 지구는 창조되기 전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자, 우리의 만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지구와 식물과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 이사야 26:4을 읽고 외웁니다.
-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구약전서 이야기 1장과 2장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와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보였던 때를 글이나 그림 일기로 씁니다.
- 나는 다음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돌보겠습니다.

창조

김 웹 리드

제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하나님은
내가 살 아름다운
장소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들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항상 저를 인도할 빛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온갖 종류의 식물로
지구를 덮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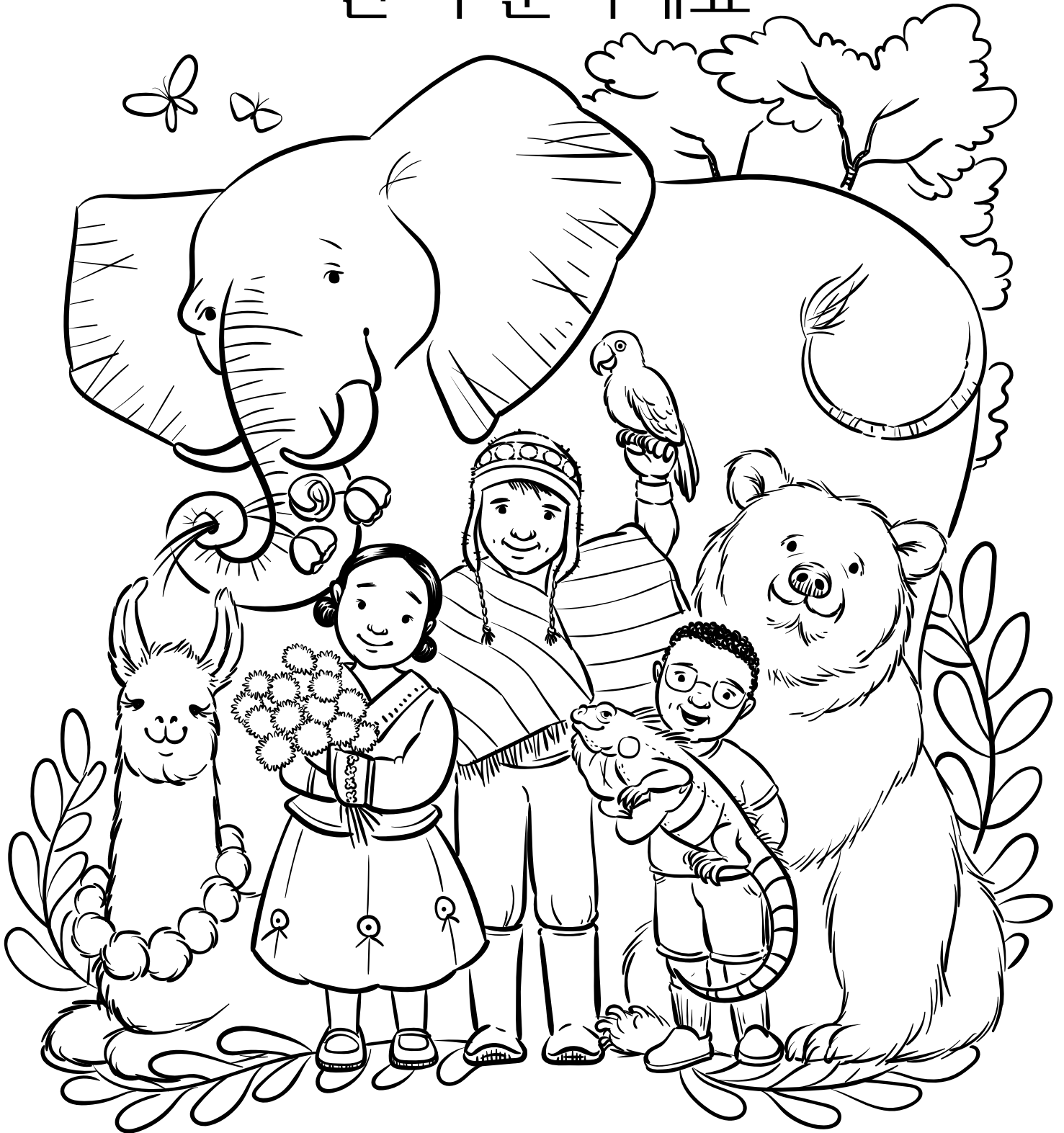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땅 위에
사는 동물도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마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느껴요.
그분께서 저를 위해 이 지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삽화: 아이프릴 스토트



엔 엘돈 태너 회장
(1898~1982)
제일회장단 제1보좌

창조의 목적

우리 각자는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 창조의 목적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경전은, 지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상태로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떠난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합당한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 [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26~28)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주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4)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있는 후에 우리는 경전에서 ... 결혼의식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성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니파이후서 28:7) ...

우리가 경전에서 배울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의 창조가 영원하고 그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브와 아담을 결혼시키신 그 유대는 영원한 것입니다. ...

부모가 그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그들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 가정에 오는 각 자녀를 창조하는 데 있어 하나님과 동업자가 됨을 인식하게 되어 출생의 기적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또 주님의 계명과 그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해의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가족”, 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20~25쪽, 번역 일부 수정. 맞춤법과 구두점은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함.



소중한 사랑,
키스 말렛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그분의 영의 자녀인 우리가 모두 지상에 와서 필멸의 육신을 얻고, 단합과 사랑 안에서 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가족 단위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상의 가정에서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준비할 수 있다.(창세기 1~2장; 모사이야서 18:21; 엘마서 42장 참조)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조기 귀환

44쪽



예상보다 빨리 선교사업에서 귀환했다면, 계속 봉사하고 발전하기 위해 다음의 여덟 가지 방법을 참고한다.

청소년

2018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공부한다.

그리스도의 화평



50쪽

어린이



여러분의 빛을 환히 비추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올해 리아호나 잡지 독자들과 나눈다!

70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